DEC 11 1981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692 1981년12월10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hursday, December 10, 1981

토론토발행인 : 김 영 규
편 집 인 : 이 석 헌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연방상원의장 마르샹의장이 8일밤 상원에서 통과된 헌법개정안을 에드·워드·슈라이어 총독에 전달하고 있다. 앉아있는 사람은 슈라이어 총독부인과 트루도 수상.

신헌법안 59:23 상원통과

엘여왕에 전달, 영하원검토 남겨

크법무 "새 역사의 장 여는 순간"

(오타와) 역사적인 캐나다의 신헌법안은 진·크레티안 법무장관과 에스몬드·버틀러 총독수석비서관에 의해 9일 아침 런던에 도착, 여왕의 인준을 기다리게 됐다. 8일저녁 오타와 상원에서 59:23으로 통과된 신헌법안은 형식적이나마 영국과의 식민지관계를 청산하고, 새 역사의 장을 여는 한 페이지가 된다. 프렌치 캐나디안인 크레티안 법무장관은 지난 19개월동안 이 헌법안과 씨름한 장본인이며, 9일 여왕과 만나 신헌법안 구조와 퀘벡의 동의를 못받게 된 배경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신헌법안을 같이 운송한 버틀러 총독비서관은 50년말 버킹햄궁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의전비서 관이다.

8일저녁 신헌법안에 서명한 크레티안 장관은 "마지막 절차만 남았다. 우리는 이제 새 역사의 장을 여는 순간이다"고 말했다.

신헌법안을 위해 9일부터 캐나다 전국에 1백만달러가 넘는 광고캠페인을벌일 예정이다. 특히 신헌법안에 불만을 품은 퀘벡주가 캠페인의 중심지가 된다.

9일 영국 여왕에게 접수된 신헌법안은 영국하원으로 넘겨져 검토하게 되며,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편집자 주 : 본보는 이제 형식적인 캐나다 종주국인 영국의 승인 절차만 남아있는 신헌법안을 간추려 수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모국재산 담보문제검토중

한국정부해외 투자법 완화이어

모국에 두고온 해외교민들의 재산을 해외주재외환은행의 견질담보(정식담보가 아닌 부차담보)로 인정해 주는 문제가 한국정부에 의해 고려되고있으며, 빠르면 내년쯤 이에 대한 모종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7일낮 이수신 전무 대동, 본사를 예방한 최승락 외환은행장은 본국정부의 해외실업인지원정책및 해외투자법완화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는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최행장은 작년에 전대통령이 LA방문당시 LA교포실업인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해외교포지원정책을 검토, 해외투자법을 완화할 것을 재고하겠다고답변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까운 시일내에 본국의외환사정이 풀리는 대로 모종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캐나다 외환은행은 한국정부의 정책이 발표되면신용도가 좋은 고객에 한해 본국에 남아있는 재산을견질담보로 인정해 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최행장은 밝혔다.

교포들중 이민올당시 한국정부의 외환관리법에 묶여 재산을 미처 캐나다로 가져오지 못한 경우가 많다.

한인은 눈에 띄는 이민

〈뉴욕타임스〉한인교포특집

〈뉴욕타임스〉지는 8일뉴욕시에 사는 한인교포들에 대한 특집을 엮어 교민들의 생활상과 낯설은 외국에서 사는 어려움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 한인교포들은 뉴욕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민자"로 지칭되었으며, 이유로는 많은 수의 한국교포들이 야채가게같은 소규모 비지네스를 경영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들 11만명의 한인들의 꿈과, 시련은 미국 이민사의 한 부분을 장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타임스〉지는 한인들이 미국에 오는 이유로 물질적 풍요뿐 아니라, 교육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라며, 한인들이 교육을 아주 중요시하는 것은 그들의 사회계층을 보아서나,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을 존경하는 것을 보아서 명백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동지는 소수민족 연구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한국인들은 언어장벽에 대해너무 의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러한 경향이 그들로 하여금 전문직에 들어가는 대신 소규모 비지네스에 종사하게 하는 주원인이라고 말했다.

동지는 또 새로 미국에 오는 한국 이민자들은「문화적충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많은 한인들이 경제적으로는 부유하나 그들의 전통적인 대가족제도를 유지하는데는 실패하였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토론토공항에 86년 제3터미날 설치

토론토공항에 제3의 터미날을 짓는 2억5천만달러의 공사계획이 연방정부의 최종결재를 기다리고 있다. 이미 토론토시등 관계부처의 승인을 다 받은 제3터미날 설치공사는 83년도말경 착공, 86년말경 완공될 예정이다.

데이빗·맥아레 공항총매니저는 9일 현재 토론토공항에는 수용능력보다 2.3백만명 이상의 승객들이 드나들고 있다. 더우기 최근 터미날의 보수공사로초만원 상태는 너욱 악화 됐다고 말했다.

▲은령을 질주하는 스키어들. 지난 추수감사절이후 20여피트의 적설량을 기록한 맘모스마운틴 스키장에는 한국스키강습회 회원들을 비롯 2천여 스키어들이 몰려 겨울스포츠를 즐겼다.(LA지사)

김대중씨등 정치규제 해제건의

신민당의원 82명, 민정당선 반대할듯

【서울 — UPI】 민한당은 3일 정부에 대해 김대중씨등 567명에 대한 정치규제를 해제할것을 촉구했다.

이날 민한당의원 82명은 국회에 결의안을 제출,모든 국민이 현재 정부가 촉구하고있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복지국가를 건설하려는 노력에 동참케 하는일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결의안에선 의원들은 김영삼,김대중,김종필씨등에 대한 정치규제를 풀것을 촉구했는데,한편 민정당은 당분간 국가의 새 정치 질서를 공고히 하기위해서는 구정치인을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이 결의안의 통과를 저지할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씨

서울민가에 풍선폭발물

북괴가 날려보낸 불온문서

(서울9일연합)북한에서 보내진 것으로 믿어지는작은 전전지 동치에 시한폭탄이 달린 큰 고무풍선이 7일하오 서울북서부 지역의서부지역의 한가옥 지붕에서 터져,집의 일부를 파손시켰다.

파손된 가옥에사는 김환식씨의 4식구는 다행히 부상을 입지않았다.

경찰은 김씨의말을 인용 하오9시30분경 응접실에서 폭발음을 들었을때 김씨는 가족들과 다른방에서 TV를 보고있었다고 발표했다.

김씨가 응접실로 나갔을때 작은 전전지들과 산산히 찢겨진 2색 고무풍선조각과 전전지를 싸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노란색 포장지가 마루에 널려 있었다.

노란 포장지에는「건전지」,「생산일 81.1.8」과「미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남도선에서 몰아내자」는 구호가 적혀있었다.

군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은 남한의 사회질서를 교란시킬 목적으로 고무풍선을 이용,갖가지 불온문서들을 남한에 살포하고있다.

군당국은 이러한 북한의 행동은 북서풍이부는 겨울철에 증가되곤 했었다고말했다.

교민의 벗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35 BLOOR ST. W(한국관: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 536-1692
R) 245-3539
454 BLOOR ST. W.
TORONTO. ONT.

강찬영
변호사
RALPH LEVINE
변호사
537-3171 ~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특쉬는 비지네스(주5일)
TAKE OUT 카프테리아 SHOP(아침7~저녁5시)
주 매 상 : $5,500 아 스 킹 : $18,950 렌 트 : 년 $120,000
렌 트 : $1,000, 리스5년+5년 다운페이 : $150,000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좋은 비지네스
● 도나스 샵
①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9년(옵션가능). 현금 $250,000Down. 아스킹 $385,000
②주매상 $8,500. 렌트 $2,900. 리스9년+5년. 다운페이 $150,000. 아스킹 $295,000
③주매상 $6,000. 렌트 $2,650. 아스킹 $190,000 현금이면 기만불 디스 카운트. 리스20년
④주매상 $8,000이상(시외). 렌트 $1,700. 리스 19년. 현금 12만불 다운페이. 아스킹 $25만
● 버라이어티
①주매상 $8,500. 리스9년+5년. 렌트 $900. 아스킹 11만5천달러(로타리오. 인컴 월1000달러)
~~②주매상 $13,000. 리스9년. 렌트 $1,850. 아스킹 15만9천달러~~ SOLD
③주매상 $7,000. 리스15년. 렌트 $950. 아스킹 7만5천달러(플라자 내)
주소 : 609 BLOOR ST. W
B)535-1251 R)536-4250

도매상에의 초대
—AN INVITATION TO ALL THE RETAILERS—
★소매업자만 거래함★
우리 도매상에는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상품이 진열돼 있읍니다.
기프트, 노블티, 사진기구, 필름, 은(銀)장식기구, 비데오, 선물용품등.

PRUDENTIAL DISTRIBUTORS
1377 DUFFERIN ST. TOR. M6H 4C7
(Just North of Dupont)
☎ : 536-1131
영업시간 : 월~금 9시~하오5시30분(토, 일요일 휴업)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e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554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선금)연 $90, 월$8,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스포츠 단상〉 ⑦

NFL 20개팀 혼전중

버팔로는 유리, 스틸러와 오크랜드 고전중

캐나다의 풋볼시즌은 지난 11월로 끝났으나 미국 풋볼은 막바지에 접어들어 8일현재 NFL 예선리그는 각팀 2게임씩 남겨 놓았고 대학풋볼은 각조 결승토너멘트가 벌어지고 있다.

미국 풋볼의 결승전은"Bowl"이라고 부른다. 역시풋볼의 최고수준과 최고인기인 NFL결승전은 수퍼보울 쟁탈전이라하고, 이밖에 10여개의 각종 보울게임이 대학팀들 사이에 벌어진다.

대학팀들은 오는 12일의 인디펜던스 보울로 시작, 82년1월1일의 5개의 보울쟁탈전까지 16개의 각종보울 쟁탈전을 벌인다.

◇부상으로 물러난 노장쿼터백 브래드쇼.

매년1월1일이면 5개가전국에 TV중계로 벌어져, 신년의 휴일을 대학풋볼로 시작할수 있다.

대학풋볼보다 미국인들이 [illegible] 흥분하는것이 역시프로풋볼.

28개팀이 아메리칸·컨퍼런스와 내셔널 컨퍼런스로 나누어 열전을 벌인다.

각팀 2게임씩 남겨놓았으나 28개팀중 20개팀이아직도 10개 Play—off자리를 노리고 있다.

Play—off 10개팀은 각 컨퍼런스별로 동부, 서부, 중앙 3개조씩 6개조 우승팀이 올라가고 각컨퍼런스팀 성적순위로 조에관계없이 2개팀씩 와일드·켓츠 4팀을 뽑는다.

와일드·켓츠 4팀은 1번경기를 치러, 2팀이 정식Play—off에 진출, 준준 결승을 각조 우승팀 6개팀 과벌이게 된다.

10개의 프레이 오프자리중 샌프란시스코만이 확정되고, 9개팀은 미정이다.

8일현재 각팀전적은 다음과 같다.

NFL예선 성적

(12월8일 현재)

아메리칸 컨퍼런스

동부조	승	패	무	득점	실점	승률
Miami	9	4	1	312	262	.679
Buffalo	9	5	0	286	250	.643
NY Jets	8	5	1	313	271	.607
New England	2	12	0	291	328	.143
Baltimore	1	13	0	222	474	.071
중앙조						
Cincinnati	10	4	0	374	266	.714
Pittsburgh	8	6	0	326	259	.571
Houston	6	8	0	254	307	.429
Cleveland	5	9	0	242	319	.357
서부조						
Denver	9	5	0	274	241	.643
Kansas City	8	6	0	326	267	.571
San Diego	8	6	0	431	357	.571
Oakland	7	7	0	257	297	.500
Seattle	5	9	0	267	344	.357

내셔날 컨퍼런스

동부조	승	패	무	득점	실점	승률
y-Dallas	11	3	0	336	254	.786
Philadelphia	9	5	0	320	200	.643
NY Giants	7	7	0	262	237	.500
St. Louis	7	7	0	305	350	.500
Washington	6	8	0	279	328	.429
중앙조						
Tampa Bay	8	6	0	272	227	.571
Detroit	7	7	0	335	295	.500
Minnesota	7	7	0	312	314	.500
Green Bay	7	7	0	286	326	.500
Chicago	4	10	0	195	294	.286
서부조						
x-San Francisco	11	3	0	308	227	.786
Atlanta	7	7	0	382	304	.500
Los Angeles	5	9	0	275	305	.357
New Orleans	4	10	0	183	322	.286

우리의 인근도시 버팔로는 리그중반에 몇몇선수의 부상으로 주춤거렸으나 강적 샌디에고를 지난6일 28—27로 물리침으로써 프레이오프 진출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버팔로는 다음주 일요일 뉴·잉글랜드와의 대전에이어 마이애미와의 마지막중요한 대전을 남겨놓고있다.

70년대에 4번이나 수퍼볼을 차지했던 피츠버그·스틸러는 작년도 챔피온오클랜드와 7일 열전을 벌였으나 30 : 27로 분패, 8승6패로 프레이오프 진출이위태롭게 됐다. 오클랜드는 7승7패로 아직도 희망이있다.

이게임에서 피츠버그의 노장 쿼터백·브라드셔는손목부상을 당해 앞으로 게임출전이 어렵게 됐다.

어쨌든 풋볼을 보려면재미있어야 하고, 재미가 있으려면 용어나 규칙등을알아야할 것이다.

게임용어 규칙등을 간단히 설명한다. 이설명은 주로 TV시청자의 이해를돕게한다.

●Touch down—풋볼의 꽃이다. 볼을가지고 어떤식으로든지 상대진영에 들어가기만 하면된다. 물론 중간에 공격팀의 파울이 있었으면 무효가 된다. 한번의 터치다운으로 4점을 얻고, 거의 98% 성공률에 가까운 3점짜리 20야드 필드골 찬스를 보너스로 얻게된다.

●First down—4번의 공격기회, 첫번째 기회이다. 공격팀이 10야드 이상을전진했거나 턴 오버등으로갖게되는 첫번째 공격기회이다. 상대방진영 10야드 미만의 전방에서 이기회를가지면 아나운서는 "First down to go to goal" 하고 외쳐댄다. 즉 4번공격에 공을 터취다운 못시키면공격기회를 잃게된다.

●Out of Sho tgun— 공격팀의 공격방법중 쿼터백의 포지션을 말한다. 1번2번의 공격을 시도했으나 실패 또는 반칙으로 공격거리가 멀어졌을때, 쿼터백은 스크럼을 짜고있는 자기팀에 5야드정도 뒤로 물러서 공을받은후 던지기로서 전진을 시도한다. 이때는 항상 쿼터백뒤에 받치고있던 런닝백들이 빠지고 대신에 Wide Receiver가 추가로 기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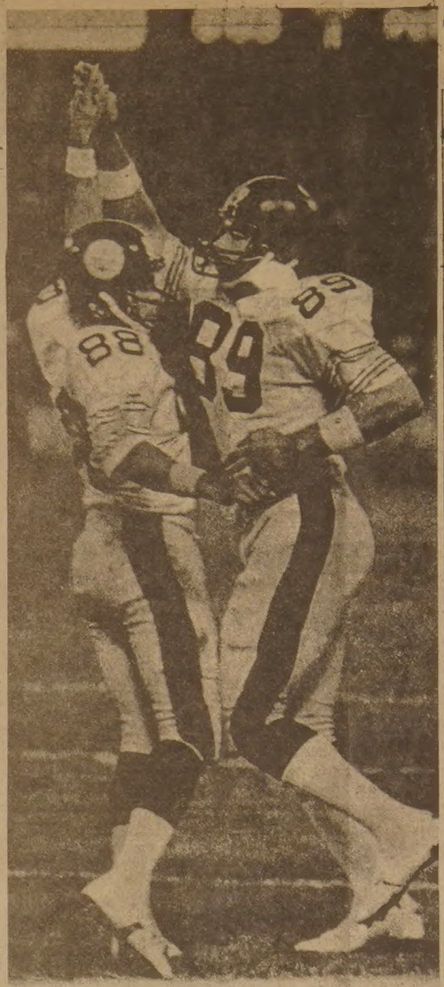
●파울—각종반칙이 엄격하게 적용된 다. 과격한경기이므로 심판의 판정권이 절대적이다. 다른경기와비슷하게 Holding, Face Mask, Upside등이 있고, 경우에따라 심판이 반칙팀을 5야드, 10야드, 20야드까지 뒤로 물러나게 한다. 반칙을 당한팀이 원할때는벌칙을 취소할수도 있다.

●오랜지·보울—우리 귀에 많이 익은소리라 무슨대회 결승전같이 연상되나 실은 마이에미에서 하는 모든풋볼경기로 오랜지·보울대회라 한다.

이외에도 많은 규칙을적용, 아리송한것이 많으나, 다음기회로 미룬다.

마지막으로 TV중계에관한것을 알아보면, 버팔로팀의 경기가 어떤때는 중계되고 어떤때는 안된다. TV중계는 방송회사의 권한이 아니다. 표가 3일 전까지 완전매진 안되면 주최팀은 자기지역에서의 TV중계를 할 수 없게할 권리가 있다. 그예로 2주전 버팔로와 워싱턴의 경기는 표가다 안팔려 버팔로지역에는 중계가 안됐고, 워싱턴지역에는 NBC를 통해 중계됐다.

(유승민 기자)



◇신형춤? 아니다. 피츠버그의 커밍햄이 첫번째 터치다운을 성공시킨후 동료선수 스탄과 같이 기뻐하는 모습. 그러나 피츠버그는 오클랜드에 30—27로 져 패배의 쓴잔을 마셨다.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단체손님 환영。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봉사합니다。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三國志 272

글·高羽榮·그림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소 론〉 ③

실업인 협동조합 설립

김 학 량 (한인신용조합 부이사장)

그러므로 신용사업을 협동조합에서 구태어 번잡스럽게 시작하는것보다는 기존 신용조합과유기적 연대관계를 맺는다면 조직적이고 기술적 운영관리가 가능하고, 그 효과면에서는 자체에서 실시하는것보다 유익하리라고 본다

B. 구매사업

사업은 조합원이 필요로하는 상품을 대량으로 일시에 공동구입함으로써 코스트를 최저로 내리게 하며, 품질면에 일정화, 혹은 이익을 꾀하자는 사업으로 크게 나누어 공동 구매사업과 알선구매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앞의 경우는 구매품을납품회사가 직접 조합원에게 배달케 하고, 그 대금은조합이 선결재(先決裁) 혹은 수금(受金)결재를 하는 방법이다. Warehous를 자체에서 가지고 구매하고 배분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나 경비가 막대하게 소요될것이므로 Cost Down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납품회사가 배달까지 담당하도록 하여야 하며, 대금결재도 자체 구매자금을 조성하여 선불하고, 납품후에 조합원에게 수수료를가산 수금하는 구매방법은납품회사에 최우선을 주는고로 구입가격이 월등하게염가로 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원리이다.

앞으로 협동조합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할 공동구매사업을 살펴보면 소프트 드링크나 Pop은 그 수량의 과다에 따라 Cost의 Down이 가능하며, 과거 수년간의 경험에 의하면 벡커나 맥스가 일할공동구매를 통하여 스페셜가격으로 판매함으로 인하여 인접된 개인가게들이 얼마나 회생을 당했는가를 상기해볼 때 협동조합은 만사를 젖히고 이 사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보는바다.

다음으로 알선구매 사업이라 함은 구매품의 대금을 조합에서 결재하지 않고 질이 좋은 상품을 좋은 조건과 좋은 가격으로 알선만을 하되 알선된 물량과 금액을 회사측의 협조를 얻어 조합원으로부터수수료만 받는 방법이다.

이 경우 알선된 구매품의 가격이 개인이 구입하는 것보다 월등히 싸야 하며, 조합에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도 이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품목이라야 한다.

실험에서 주선한 바 있는 Potato Chips, Peanuts, 그리고 아이스크림, 잡지 등은 알선구매사업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으나 협회원에 수수료를 차-지 하지않고, 회사측에서 커미션을 받는 방법은 그 원 가가 결코 싸질 수 없다는점으로 보아 바람직한 알선방법이 못된다고 보겠다.

C. 판매사업

협동조합에 있어서 판매사업은 즉 공판(共販)사업을 뜻한다. 생산자 협동조합에서는 공판장을 설치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상품을 적기에 적가로 판매하고 수수료를 얻으며, 소비자협동조합에서는 소비품을 대량염가로 구입하여공판장을 통하여 판매하여조합원에게 이익을 주는 사업이다.

(계속)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노년회 송년파티

어느덧 신유해도 저물어 갑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모든 것을 정리 하며 새로운 계획도 세우곤 합니다.
모두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즐거웠던 것과 괴로웠던 것을 풀어놓고 하루를 즐기시지 않으시렵니까?

일 시 : 1981년 12월18일(금) 오전11시부터
장 소 : 한 인 회 관
행 사 : 1. 영화상영
2. 중 식
3. 오 락

※밀렸던 회비를 속히 납부 합시다.

한국 노년회
회장 정 인 기

성탄축하음악예배

"인류의 소망이며 구세주이신 예[redacted]의 탄생을 [redacted]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음악예배를 준비[redacted] 교인 여러분을 [redacted]니다."

일시 : 12월20일(일)저녁7시
장소 : 토론토한인장로교회(1183 DAVENPORT RD.TORONTO
전화 : 535—6864)

지휘 : 백효증
반주 : 김명원
합창 : 본성가대, 호산나청소년합창단 합동 80명대원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중동 동창회
연 말 파 티

금년도 중동동문회에서는 X-Mas파티겸 망년회를 다음과 같이 갖고저 하오니 부부동반 하시어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1년12월19일(토요일) 오후7시
장 소 : 4035 Goldon Baker Rd. Macho
레스토랑(498—1300)
(Victoria Pk. × Steele Ave. E.)
1 부럭 남쪽코너에 위치함
회 비 : 커플당 $30.00(기프트및 상품이 있음)

연락처 : 회 장—홍사겸(743—5329)
부회장—이용석(363—3687)
총 무—신경식(439—3690)

중동 동창회
회장 홍 사 겸

파격적 누드장면
쏘·영화「모스크바는…」

팬티차림여인모습 그대로 쏘 전체인구의30%가 관람 아카데미상외화부문 수상

금년도 아카데미상 외국영화부문상을 획득한 소련영화「모스크바는 눈물을 믿지 않는다」가 미국을 비롯한 구미각국에서 대호평을 얻고 있다. 소련전체인구의 30%가 관람한 이 영화는 3인의 여성이 자립하는 과정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 대담한 노출장면이많아 소련의 문화정책이 궤도수정을 꾀하고 있지 않나하는 추측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인공은 모스크바에 거주하는 3인의 여성근로자. 듀드미라는 아이스하키 선수와 안토니나는 순박한 건설노동자와 각각 결혼해나름대로 살림을 꾸려나간다. 이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공장과 가정에서 애쓰는 모습도 강한 인상을 주지만 이영화의 핵심인물은 역시 카테리나다.

베리·알렌토바가 열연한 카테리나역은 놀랍게도 미혼모다. 카테리나는 텔레비전 방송국의 연출자와사랑에 빠지나 그녀의 신분이 근로자라는 것때문에실연당한 신세다. 그러나 아기를 키우면서도 공장에서 일을하고 독학까지 하는 의지의 여성으로 20년뒤에는 공장장이 된다.

종래의 소련영화라면 이데올로기 취향의 대작이나 도스토예프스키 또는 톨스토이원작의 문예작품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이러한 흐름때문에 공산권 이외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었고 흥행도 시원치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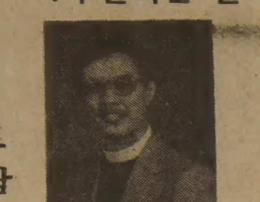
그러나 이영화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부숴버리기 충분하다. 소련여성들의 일상생활을 사실적으로 묘사했을뿐 아니라「노출의 정도」에 있어서도 서방세계의 영화만큼 대담하기 때문이다.

알렌토바가 남자와 정사를 나누는 장면이 매우 선정적으로 그려졌으며, 그녀의 성장한딸이 목욕을 끝낸후 팬티차림으로 음악을 듣는모습은「저것이 소련영화인가」라고 의심할 정도. 뒷모습을 잡기는 했지만젖꼭지가 확연히 드러난 자세였다.

이와같은 획기적 누드장면 때문만은 아니겠으나어쨌든 소련인구 2억5천만명중 8천만명이 이영화를 관람, 소련최고기록을 수립했다.

「모스크바」의 파문은 국경을넘어 서구 각국으로파급되었다. 계기는 아카데미상. 외국영화부문에서「모스크바」가 구로자와 아끼라 감독의「영무자」와 프랑스와 트뤼포감독의「마지막지하철」을 누르고 당당 수상의 영광을 누리자 세계각국의 영화인들이 시선을집중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선교교회 안목사 사임
7주년되는 안식년을 맞이해



◇안상엽 목사

토론토한인선교교회 목회를 맡아오던 안상엽목사가 사임, 금년말로 선교교회를 떠나게 됐다.

75년 동교회를 창설, 목회를 맡아오던 안목사는82년 교회가 7주년되는 안식년을 맞아 그동안 밀렸던 저서집필등 종교연구를 위해 사임했다고 동교회 당회 서기장 허삼해 장로는 8일 발표했다.

보스톤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70년 토론토장로교회에서 목회자생활을 시작한 안목사는 이민정착초기의 교포들을 위해 이민문제, 법정문제, 직장문제등을 도와주었었다.

그동안 많은 신문칼럼의 본보연재(약 150회 기쁜소리)등 수많은 글을 교포신문에 기고했다.

안목사는 82년부터는 당분간 목회생활을 쉬면서그동안 준비해온 저서를 완성하고, 기타 다른 복음사업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교교회는 곧 교회기관의 인준을 받는대로 새 목사 취임을 발표한다고 허장로는 말했다.

교민동정

◆유 인(테너)=숨은 음악인으로 알려져 왔으나, 토론토시립 오페라단에 들어가 본격적 직업성악가의 수업을 쌓고 있다.

오는 2월 공연될 동오페라단의 "돈 노바니", "토스카"등에 주역으로 출연하리라고.

◆서만수(토론토한인회 청소년부장)=속간되는「한인회보」편집장직을 맡아 발행준비에 동분서주! 1월1일자로 첫선을 보이고, 월간으로 매달 1일자에 발행 예정이라고.

〈수 상〉 낙 서(落書) (4)

홍 기 만(문협회원)

〈꿈 꿀 힘이 없는 자는 살 힘이 없는자다〉

얼핏 이름이 떠오르지않는 어느 소련작가의 말이다.

조금은 순진했고 낭만기 있었던 젊은 시절, 꿈을 갖는다는 것은 생애의 강렬한 의욕으로 해석했었기에 스스로의 의지 속에 꿈을 심어주었었고, 꿈을 키워 나갔고, 꿈이 깨어지면 다시금 새로운 꿈을 새기며 스스로의 마음을 달래곤 했었다.

꿈은 바로 현실이 아닌 미래의 희망과 설계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어휘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지니게 마련이며, 그것은 인간이 갖는 본능이기도 하다. 수많은 작가들이「유토피아」의 세계를 열심히 추구하며 작품에 옮기는 것도「꿈의 마력」때문일 것이다.

소련인들은 꿈이 많은 민족인 모양이다.

"R 2 D4 H1 S1."

이것은 1930년대말 미국에서 잇따른 베스트셀러를 저술한 바 있는 유명한 중국의 임어당(林悟堂)이 소련인 성격구조를 요약한 기호다. R은 Realism, D는 Dream, H는 Humouy, S는 Sensibility의 첫자를 딴 것이다.

유머와 감수성은 서구인들에게 훨씬 미치지 못하면서도 유독 꿈이 많은 것이 눈에 뜨인다. 북국의춥고 긴 겨울밤「뻬치카」에 불을 지피고, 훈훈한 온기속에「보드카」를 마시며 얼어붙은 유리창을 통해 어렴풋이 내다보이는 설경을 바라 보면서 맑은 햇살이 눈부신 신록(新綠)의 봄을 그들은 꿈꾸는 것일까.

일제(日帝)를 겪었고, 공산치하를 맛보고, 한국의 긴 정치를 경험하고, 이제 북미 대륙에 표류(漂流)한 나는 그 소련작가의 말의 참뜻을 깨닫기까지 퍽 오랜 세월이 걸렸다는 생각이 든다.

소련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꿈을 먹고 자라난다. 이른바「시월(10月)혁명」이 1917년에 있었고, 잇따른 내란과 혼란 속에서 반대파와의 싸움에 이긴「볼쉐비키」당파는 1922년말에현재의 사회주의 체제를 선포했고, 그때로부터 백성들은 맑스와 엔겔스의 공산이론에 레닌주의의 새로운 논리를 첨가해서 간단없이 꿈을 먹기 시작한 것이다. 농노는 농주가 되었고, 노동자는 공장주가 되었으므로 이민족은 지상에서 제일 잘살며 가장 자유로운 국가가 될 것이고, 종국에 가서는 정부없이도 스스로들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낙원이 될것이라는 허황한「아나키」론(論)까지 곁들인 끊임없는 꿈을 불어 넣으면서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에는 재갈을 물렸다.

우리 한국인들이 꿈을먹기 시작한 것은 1960 년대 초반부터다. 젊은 학생들이 이루어놓은 신화가 짓밟히면서 줄곧 꿈을 먹기 시작한 것이다. 5·16직후 J.P는 기자회견에서 이런 적이 있다.〈우리의 국민소득이 200달러만 되면 그때 우리 모두 마음 놓고 데모를 합시다.〉—이것은 차라리 애교있는 호소였다.

〈소비가 미덕(美德)되는 사회〉,〈외화보유 포화(飽和)현상〉,〈중진국〉에〈상위〉라는 낱말을 얹어〈상위중진국(上位中進國)〉— 언뜻 들어도 정치적인 색채가 아주 짙은 용어를 나열하면서 부지런히 꿈을 집어넣었고, 거기에 가끔 전쟁위기의 환각까지 뿌려놓은 곳이 바로 내가 살고있을 때의 한국이었다.

지난 5월 캐나다의 의회에서는 야당의원들의 신랄한 공박이 전개되고 있었다. 고금리정책과 경제불황으로 캐나다는 어디로 갈것이냐는 힐난이 빗발치고 있었다.

수상은 답변에 나섰다. 그는 흔연히 " Canadians are better off"라는 것이다. 이나라가 부유하기 때문에 꼭 그러한 답변이 나온 것은 아닐 것이다. 민주주의의 표본으로 전세계 양심가들의 선망을 사고있는 영국을 종주국으로 삼고 있는 캐나다의 수상다운 답변이다. 수상은 계수를 나열하거나 꿈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었다.

내가 그 소련작가의 말의 진의(眞意)를 깨닫기까지에는 퍽 오랜 세월이 걸렸다. 그것은 위정자를 위한 글이었고, 그리고 독재정권일수록 국민들에게 꿈의 환각을 주입 시킨다는 것 또한.

지금 부지런히 볼펜을 굴리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내 자신이 무척 짜증스럽고, 자기혐오마저 느끼는 것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다.

글에는 도통 자신이 없을 뿐 아니라, 어휘구사의 빈곤, 착상의 빈약함 등 글다운 글을 쓰지 못하는 주제이기에 제목은 감히 부칠 엄두를 못내고, 그저 낙서(落書)라는 흔해빠진 단어를 빌려 아무런 부담 없이 그적이려는 조그마한 나의 의도마저 부서지는 것같은 지금의 심정은 이 글이 너무나 비뚜러졌기 때문인 것이다. 임오당의〈Dream4〉는 내가 쓴 의미의 실없고 값싼 꿈은 아니다.

나는 무엇인가 잊어버린 것이 있는 것이다. 나는무엇인가 써야 할 것이 있을 것만 같다.「꿈」이란 워낙 소중한 것이기에 말이다. 소녀가 지닌 아름다운 꿈은 내게는 너무나 사치스러운 이야기가 될 것이다.

내가 잊어버린 것은, 내가 써야 할 것은 고국에 있는 가난한 서민들의 소박한 꿈이어야 했을 것이다. 눈에 뜨이지 않는 곳엔 더 많은 어두움과 괴로움이 있는 것이다. 스산한 세모가 다가 옴에 따라 서글품 마저 서려있는 가난한 서민들의 소박한 꿈을 써야 했을 것이다.

주간女性

기쁜 소리 444-4011
메 시 야

안 상 엽

그렇게도 화려했던 나무들이 이제는 벌거벗고 서있다. 산과들에 찬비와 눈송이가 떨어지면 그 속에서찬바람을 맞는 나무가지들은 오들오들 떨고있다. 그러나 저멀리 거리와 집들의 창문에는 오색의 불빛이 찬란하게 반짝거리기 시작한다. 명절인 모양이다.

마치 그옛날 싸늘한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는 헐벗은 목동들의 피곤한 눈동자가 멀리 휘황찬란한 예루살렘도성을 바라보는 광경과도같이 첫번 크리스마스와오늘의 크리스마스 축제는 그 모습이 대조적이다.

오늘의 크리스마스는 첫번 크리스마스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리 발전하고 변질했으며, 그 본래의뜻을 잃고있다. 왜냐하면 오늘의 크리스마스는 인생의 수난과 고뇌와 죽음을 안고 오들오들 떨고 있는 인간을 외면하면서 오히려 캐바레, 나잇클럽, 요정, 그리고 화려한 상가와 백화점에 먼저 찾아와 붐빈다. 돈을 벌고 돈을쓰는 계절이 되었기에 돈이없고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쓸쓸하고 외로운 목자들같이 실망과 슬픔을주는 계절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 속에는 메시야가 세상에 오신 크리스마스의 본의는 없는것이다.

첫번 크리스마스(Noel)는 돈을쓰는 화려한 장소나 전통을 고수하는 종교인들이 모인곳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버린장소, 돈도없고 불빛도 없는 어두운곳, 권력자들이나 화려한 축제장소, 그리고 사고팔면서 욕구를 만족시키는 처소에서 시작된것이 아니라, 순진한 양들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면서 잠들고, 주인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송아지들이 말없이 서있는 곳에서 시작되었다. 거기에는 다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아기예수가 어머니 곁에 차갑게 누워있고, 찾아온 목자들과 가축들이 신기로운 눈으로 아기를 바라보면서 기다렸던"메시야"이기에 엎드려 경배함으로 기쁨과 평화(Salom)를 가졌다.

크리스마스는 분명히 "메시야"가 세상에 태어난 사건이요, 인류역사의 전환점이기에 교회만을 위하고 신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하고 온 인류를 위해 구체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다.

"메시야"(Messiah)란 하브리말로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이며, 헬라어의 번역에 "그리스도"(XρισTós)가 된 것이다. "기름을 부은 자"는 왕이요, 제사 장이요, 예언자였다.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한 말씀중에 메시야의 사명을 내포시키고 있다. "메시야"시며, "크리스도"시며, "주님"이 되신 예수의 탄생 속에는"하나님의 나라"(The Kingdom of God)를 건설하는 구원의 사건이 들어있고, 또한 구체화되었으며, 재림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탄생으로 인해 옛날 다윗왕이 다스린 유대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복받으며, 병고침과 욕망의 충족을 꿈꾸었으며, 권력 자들과 종교인들은 메시야로 오신 예수로 인해 자신들의 지위를 염려하므로 미워하고 모략하고 중상에 몰두하다가 결국은 죄없는 자가 죄패를 쓰고 사형을 당하기까지 된 것이다.

그것으로 첫번 크리스마스는 그 껍질과 흔적이 없어지고 말았으나 참된 크리스마스의 씨알과 알맹이는 살아 부활했고, 하나님의 옛 언약은 그대로 땅끝까지 성취해 가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의 근원이 곧 "메시야"이며,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통해 인생과 가정과 나라들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번 성탄절에도 메마른 땅에 성숙되어 가는 것이다.

(선교교회 담임목사)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景氣예고指標 다시下落

10월中 內需부진·輸出둔화로

연초이래 완만하나마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왔던 景氣豫告指標가 10월중 다시하락해 내년초의 경기전망을 어둡게 해주고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10월중 경기예고지표 종합점수는 1.0으로 지난9월의 1.1보다 0.1포인트가 떨어져 8월이후 2개월동안지속되어온 1.1에서 6~7월수준으로 뒷걸음질치는 양상을 드러냈다.

8월이후 2개월持續 1.1서 0.1포인트 떨어져

2~3개월앞의 경기를 예측하는데 사용되는 경기예고지표는 지난79년이후 계속내리막길로 접어들어 2년동안 不況圈을 헤매다가 지난6월 불황분기점인 1.0을깨고올라섰으며 8월에는 다시 1.1로올라 9월중까지 안정권에 접어들었는데 10월중에다시 후퇴한것이다.

10월중 경기예고지표가 다시 하락한것은 올들어 경기회복을 주도해온 수출신장세가 8월이후 급속히 둔화되고있는데다 소비 투자등 국내수요도 별다른 회복전기를 찾지못해 생산출하등 공급관련지표가 부진했기때문이다.

개별지표동향을 보면 ▲기계류수입이 9월의 下向性안정세(17.8)에서 上向性안정세(35.5)로 돌아선 것을 비롯 ▲건축허가면적이 마이너스 9.4(-15.1) ▲어음교환액 44.3(9월 40.3)▲제조업시설자금대출 24.9(18.9)▲일반기계생산34.1(22.9)▲총통화 26.3(26.1)▲서울소매액지수9.6(8.7)및▲신용장내도가 마이너스 11.9에서 마이너스 2.3으로 약간씩 호전기미를 보이고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표가 하락세로 반전되여▲화폐발행액이 안정권(10.3)에서 불황권(4.9)으로▲전기업생산지수(9.8)▲출하지수(12.6)및▲수입이 4.3에서마이너스 6.1로 떨어지는등 4개지표가 불황국면으로 접어들었으며 이밖에▲제조업생산지수(15.7)▲중소제조업생산지수(7.4)▲수출(4.3)및▲비식용원료수입지수(마이너스 0.8)등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教育혁신으로 質的전환

教育憲章선포 13돌 全대통령、教育者대회 致辭

"知識위주보다 全人교육 師弟관계、신뢰·人格的 交感으로

◇全斗煥 대통령이 전국 교육자대회에서 有功者들에게 훈장을 걸어주고있다.

全斗煥 대통령은 5일『상급학교 進學과 사회진출후의 경쟁에 대비한 기술을 습득시키는데만 치중하나머지 바르고 참된 人性을 길러주는 일에 있어 소홀했던 것이 지난날 잘못된 우리교육의 한斷面』이라고 지적, 『지극히 小我的이고 個體차원에만 머물러온 지식습득위주의 교육에서 이제 우리는 과감히 전환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영부인 李順子 여사와함께 서울蠶室체육관에서 열린 국민교육헌장선포 제13주년기념 전국교육자대회에참석, 치사를통해 이같이 강조하고『後繼세대들이 자신의視野와 思索의 폭을 더욱넓히고 內實을더욱 굳게다짐으로써 개방사회의 떳떳한 주인이 될수있도록 이끌어 나가는것은 오늘을 사는 旣成세대의 막중한 責務인것』이라고말했다.

全대통령은 교육혁신에관해『교육혁신은 단지 시설확충에 그치는일이아니며 名實相符한 全人교육의 시행으로 교육의 質的전환을 이룩하는데 그목표가있다』고 설명하고『後繼세대들을 中興의 새民族史를 엮어나갈 주인으로 키워나가기위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知·德·體를 겸비한 全人완성의 교육을 주지않으면 안될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교육자여러분은 꾸준한 자기혁신을통해 새시대의 새 교육자像을 정립해야할 일차적과제를 안고있으며 특히 스승과 弟子와의 관계는 인간적 이해와 신뢰가 그 전제가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 師弟間에 인격적 交感이 이루어질수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하고『이렇게하는일만이 근래퇴색해가는 師道를 밝히고 약화된 敎權을 확립하는길』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오늘날과 같은 고도산업사회, 대중교육시대에서 모든교육자에게 知的 道德的으로 완전무결한 師表가 되어주기를 요구하기는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고전제하고『그러나 시대의 변천에 안이하게 편승해 교육자여러분이 제자로부터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스승이기를포기하고 단순히 지식과기술을傳授하는 한낱 技能人에머물러있을수는 없을것』이라고 강조했다.

年末까지 3千億방출

정부發注공사·物品代金등

정부는 시중자금난을 덜어주기위해 해마다 다음해1월20일까지 지불해온 각종공사와 물품대금등 국고에서 업계에 나가는 국고자금을 1개월가량 앞당겨 앞으로 연말까지 약3천억원을 조기방출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예산회계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정부세출금의 출납정리기한이 종래의 다음해1월20일까지에서 올해부터는 12월말일까지로 앞당겨진데 따른것으로 재무부는 출납정리기한 단축조정에따른 업무처리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이지침에 따르면 금년중에 발주하는 각종공사와 물품대금등 정부지출행위는 특별한 사유가없는한 연말안에 모두 완료해야한다. 국고발행수표의 지급기한은 12월31일이내로하고, 한국은행은 다음연도 1월15일까지 이를 지급할수 있게되는데 1월15일까지 지급이되지않은 부분은 세출금지급미필이월계정으로 정리하게된다.

또 정부가 12월31일이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것중 12월31일까지 지급하지못한 것은 다음연도로 예산을 이월하여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출하게된다.

그런데 작년의경우 각종국고지출원인행위를 한것중 해를넘겨 대금이지출된것은 3천4백84억원에 이르렀는데 이처럼 올해도 3천억원정도는 내년으로 넘어갈만한것이 연내로 앞당겨 지출될것으로 보인다.

「經協」문제등 일괄妥結모색

日改閣계기 政府서 효율적 外交交涉 검토

韓日각료회의 폐막후 3개월남짓 교착상태에빠져온 韓日양국간의 60억달러 經協공여문제는 日스즈끼(鈴木)행정부의 2次內閣 出帆을계기로새로운 돌파구가 모색될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움직임은 특히 지난4일 사쿠라우찌(櫻內義雄)신임 外相과 崔慶祿駐日대사의 요담을통해 經協교섭再開를위한 日本측의 새로운 의사가전달된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이번 요담에 관한 駐日대사관의 보고내용을토대로 60억달러의 一括타결을위한 단계적이고 효율적인외교교섭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알려졌다.

외무부는 5일 崔·사쿠라우찌요담에서 日側이 제시한 실무자級의 접촉요청을 문제해결을위한 日정부의 호의적인 반응으로보고 이의수락여부와 가능한경우 실무접촉을 통한 年內外相회담의 再開및 나아가 頂上회담의 조속한실현방안등을 신중히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양국문제를 국민적次元에서 해결할것과 구체적인시기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訪韓의사를 표명한 사쿠라우찌외상의 提議내용을 지금까지의 교착상태를 풀기위한 日행정부의 태도변화로판단, 駐日공관을 통해 정확한 진의와 배경을 보고토록 훈령하는한편 다각적인대응방안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의 한당국자는 그러나 사쿠라우찌外相이 60억달러의 安結에 앞서 81년도의 엔차관문제를 먼저 협상할것을 요청한데대해『정부의 입장은 82년도부터 시작되는 5차5개년계획에 소요될 자금의 충당분으로서 60억달러를 필요로하는것』이라고 종전의 방침을 거듭밝히고『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이미 4일의 요담에서 崔대사를 통해 日側에 전달됐다』고 말했다.

"安保·經濟는 表裏一體"

全대통령、日民社黨위원장에 强調

【東京 5日=聯】全斗煥대통령은 4일『평화및 안전추구와 경제문제는 그렇게 간단히 분리할수 없으며 결국 표리일체』임을 강조했다고 사사끼·료오사쿠(佐佐木良作)일본民社黨위원장이 밝혔다.

訪韓중인 사사끼 위원장은 이날 全대통령을 예방한후駐韓일본기자들에게『韓日관계의 중요성에 비추어 조속히 관계정상화를 추진하고싶다』는 스즈끼(鈴木善幸)일본수상의 의향을 全대통령에게전달했다고 밝히고『全대통령은 60억달러 경제협력문제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안보와 경제의 표리일체성을 강조했으며 자신도이에 기본적으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南惠祐총리등 한국지도자들과의 회담을 통해『경제협력과 관련 한국측이 강조하고 있는것은 일본에서 얘기되고 있는것처럼 안보요새론이라든가 방위代役같은것이 아니며 국방비부담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경제재건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말했다.

"五輪에 보이코트單語 없다"

사마란치 내년 南北韓 방문

【사라예보(유고) 4日AP=聯】환·안토니오·사마란치 국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장은 4일 자신은 오는 88년 서울올림픽대회가 모든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될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내년4월 南北韓을 각각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마란치 위원장은 이날 유고의 사라예보에서 3일간의 IOC집행위원회가 끝난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北韓 共産정권이 서울 올림픽을 보이코트 할 것이라는 보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사마란치 위원장은『나는 보이코트란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내가 알고있는한 지난 모스크바올림픽대회이후 올림픽에서 보이코트란 단어는 사용되지 않고있다』고강조했다.

그는 또 세계각국이 모두 서울올림픽에 참가할것을 한국이확신하고 있는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마란치 위원장은어떤국가도 올림픽대회의 참가를 강요당할수는 없다고 말했는데 로드·킬러닌 前IOC위원장도 미국이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항의, 모스크바올림픽을 거부했을 때 이같이 말했었다.

사마란치 위원장은 그러나 현재의 올림픽규칙은 올림픽을 일단 수락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회원국의 올림픽위원회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가하기로 규정되어있다고 지적했다.

江原·全南16지역 巡廻 民願상담반 내일부터 派遣

정부는 오는7일부터 16일까지 江原과 全南벽지 어촌과 광산촌등 16개지역에 巡廻民願상담반을 보내기로 했다.

이번순회민원상담계획에의하면 상담반은 정부합동민원실요원과 해당지역행정상담위원등 6명으로 구성, 全南과 江原지역에 각각 파견된다.

이번 상담반은 자연부락단위까지 직접찾아가 민원을청취, 처리해주고 민원제도의개선과 민원실태에 관한 자료도 수집할 예정이다.

순회민원상담반 활동 대상지역은 江原道의▲寧越郡寧越邑과西面▲旌善郡南面과東面, 全南의▲求禮郡求禮邑과山洞面▲麗川郡三一邑과突山面등이다.

公共證券·信託 제외

상호賦金등 來年가입分부터 課稅

教育稅法공포 1월1일施行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教育稅法을 5일자 법률제3459호로 公布, 82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教育기반의 확충을 위해 학교시설과 교원처우개선에 소요되는 財源의 확보」를목적으로 하는 교육세법의 非課稅범위는▲租稅 감면규제법이나 條約의 규정에의한利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소득세를 非과세하거나 감면하는경우▲수출용 제조담배▲2백80원미만인 제조담배▲국가또는 지방자치 단체가발행하는 債券및 증권의利子와 할인액▲국민저축조합 저축의利子▲한국토지 개발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 채권의 利子▲公益信託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등으로돼있고 課稅기간은 金融, 保險業의 경우 1년에 4分期로나눠져있다.

한편 금융·보험업자는 1기분 교육稅額을 5월31일까지, 2기분은 8월31일, 3기분은 11월30일, 4기분은 다음해 2월末까지 신고와 동시에 납부케돼있다.

교육세법은 또 附則에 경과조치를두어 정기적금과 상호賦金및 주택부금에 대해서는 시행일인 82년1월1일이후 계약하는것부터 적용, 分離課稅이자소득과 분리과세 배당소득에대한 소득세에 교육세를 附加토록했다.

國土開發硏 院長 金儀遠씨를 發令

정부는 5일 공석중인국토개발연구원장에 金儀遠전국립지리원장<사진>을 발령했다.

★얼굴2면

EC에 우라늄供給 中共서 두차례提議

【브뤼셀4日聯=聯】중공은 歐共市(EEC)에 우라늄판매를 평화목적사용을 전제로 제의했다고 EEC고위소식통들이 4일 밝혔다.

EEC와 중공간의 관계긴밀화를 반영하는 이같은 제의는 금년4월 유럽지질학자들의 중공방문기간중에 처음나온것으로 지난11월 北京에서 개최된 EEC·중공합동무역위원회에서도 다시 되풀이됐으며 EEC회원국들은 현재 이를 검토중이라고 이소식통들은 전했다.

美F16機 24대販賣 南美 베네수엘라에

10年만에 첫計劃

【워싱턴4日AP=聯】미국방성은 4일 미행정부가 F16 최신예전투기 24대를 베네수엘라에 판매할 계획임을 의회에 공식 통보했다.

미정부의 이같은 對베네수엘라 전투기 판매계획은 앞으로 30일이내에 의회의반대가 없을경우 정식으로 확정된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전투기를 판매키로 한것은 중남미에 대한 전투기판매로는 근10년만에 처음있는 일인데 워싱턴소식통들은 미정부의 이같은결정이 니카라과를 비롯한 중부아프리카에서의 쿠바의 전복활동에대한 미행정부의 점증하는 우려를 반영한것이라고 지적했다.

社會漫評

이런것이 있었나?!…

地平線

어제(5일) 전국의 교육공로자 3천7백35명이 훈장과 표창, 감사장을 받았다. 교육헌장선포 13주년을 맞아 소집된 전국교육자대회에서 師道를 지켜온 이들, 우리나라교육을 뒷받침해 온 이들이 상을 받은 것이다. 한사람의 교사가 28만 교육자의 얼굴에 재를 뿌렸던 뒤끝이라, 교육공로자를 높이는 뜻은 더욱 컸다. ▼교육본래의 모습은 이렇게 가슴 뿌듯한 것이다. 스승은 제자를 내자녀보듯 하고, 제자는 스승을 어버이 모시듯 한다.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교사가 있다고 해서, 모든 교사를 매도하지는 않는다. 배움의 길을 벗어난 제자라도, 매를든 스승은 눈물을 머금는다. 이런 교육 현장의 理想을, 全斗煥 대통령은 「師弟간의 人格的 交感」이란 말로 표현했다. 때가 때이기에 되씹을만한 함축이 있다. ▼대통령의 대회 致辭는 이렇게 이어진다. 『우리는 오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일을 위해 사과나무를 심는 충정으로 교육혁신에 모든 정성과 슬기를 기울여 나아가야 할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교육이 소중한 까닭은 바로 「내일을위해 사과나무를 심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스승의 길을 높여 받드는 까닭, 교육을 百年大計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것이다. ▼「내일의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은, 열매가 열기까지의 時差를 염두에 둔다. 潤相군사건을 다룬 국회발언중에도 이점을 일깨운 대목이 있었다. 朱모교사는 6·25혼란기의태생이다. 5·16뒤 학교교육을 받고, 70년대에 대학교육을마쳤다. 끔찍한 일을 저지른 그의 心性은, 그 總和가 아니겠느냐 — 대강 이런 뜻의 질문이다. 朱모가 드러낸 문제가 교사의 자질, 교사양성에만 관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옳은 지적이다. ▼우리교육의 가장 큰 결함은 時差觀念을 저버린 성급함에 있다. 지금 교육의 성과는 짧잡아 10~20년 뒤에야 나타난다는 視野가 모자란 것이다. 그러니까, 새 大入제도로 입학한 학생이 졸업하기도전에 入試제도가 또 바뀐다. 교사가 무슨 일을 저질렀다고 해서, 며칠만에 국회에나온 장관이「대쪽」「획기적」인 개혁을 장담한다. 時差를 둔 교육효과를 우리는 朱교사에게서 보았기에, 아쉬운 것은 교육행정의 時差觀念이다. 「내일의 사과나무를 생각하며, 교육헌장을 다시 읽을 필요가 있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서 울 여 행 사
IATA
교포특별우대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 국내·국제 항공표 일체
● 이민·방문 초청 안내
631A BLOOR ST. W.
535—6004, 8801
293—9970, 5823
최 동 주

생명의 말씀
CITY-TV : 채 널 79
케이블 7
일요일 8 : 30~9AM
MTV : 채 널 47
케이블 4
목요일 12 : 30~1PM

IATA 천우여행사

성지순례단모집
출발일자 : 1982. 4. 27(화)
귀환일자 : 1982. 5. 11(화)
방문 지 : 이스라엘 9박
에집트 3박
화 란 1박
모집인원 : 6명 선착순
요 금 : $ 2,225
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1급호텔 숙박(2인1실)
○1.일3식(지정식사)
과외비용 : 항공세, 사증료, 팁등 약 $ 80
예 약 : 1982. 1.31 까지 1인당 $ 300 지불
＊예약금은 취소할 경우 반환치 않음
잔액지불 : 1982. 2. 27
기 타 : 안내는 영어로만 함.
요금은 예고없이 변동함.

유럽단체관광모집
출발일자 : 제1진~1982. 4. 28(수)
제2진~1982. 6. 23(수)
귀환일자 : 제1진~1982. 5. 19(토)
제2진~1982. 7. 10(토)
방문도시 : 런던③, 암스테담①, 프랑크푸르트①, 인스부룩크①, 베니스①, 후로렌스①, 로마②, 니스①, 루쎄른①, 빠리② (○안은 유숙일 수)
요 금 : 제1진~$ 1,570
제2진~$ 1,730
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1급호텔숙박(2인1실)
○대륙식아침(12회) 저녁식사(7회)
○구라파내 교통및 중요관광과·입장료
예 약 : 1인당 $ 300 1진 1982. 1. 31까지
2진 1982. 3. 31까지
＊예약금은 취소 할경우 반환치 않음
잔액지불 : 1진~1982. 2. 27
2진~1982. 4. 30
기 타 : 안내는 영어로만 함
요금은 예고없이 변동함

HERALD TRAVEL SERVICE
720 SPADINA AVE. SUITE 104
(AT BLOOR TORONTO, ONT
B)416 928—3335 R)651—8081 김현두

蘇、核감축用意 표명

"最終목표는 유럽서의 核완전除去"

【본4日합=聯】 소련은 현재 제네바에서 열리고있는 美蘇군축협상의 주제인 유럽배치 核무기감축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할용의가 있다고 소련의 노보스티통신이 4일 밝혔다.

노보스티통신의 정치평론가인 블라디미르·카틴은 이날 논평기사를통해 소련이 유럽배치 核무기의 단계적감축을 수락할것이라고 말하면서 소련공산당서기장 레오니드·브레즈네프가 서독방문시 발표한 무기감축제의는 소련이 제네바협상을 지연시킬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것이라고 지적했다.

카틴은 소련이 추구하는 목표는 유럽으로부터 중거리미사일과 전술核무기 모두를 제거하는것이라고 말하고 이 과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단계적으로 해결할수 있다는게 소련지도층의 견해이며 소련이 합리적인 협상을 모색하는것도 바로 이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소련의 단계적 접근입장은 미국이나 그밖의 西方국가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서방측도 이번 제네바협상에서 첫단계로 지상미사일만을 다루기를 바라고있기때문이다.

美·蘇협상 두번째全體회의
蘇대사관서…內容 계속非公開

【제네바4日AP=聯】 제네바 군축협상에 참석중인 美蘇대표단은 4일 유럽배치중거리 核미사일감축에관한 협상개시이래 두번째 전체회의를 열었다.

양측은 이날 제네바주재蘇대사관에서 2시간25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이 끝난뒤 아무런 구체적논의내용도 공식발표하지 않았는데 한蘇측 대변인은 앞서 양측의합의에 따라 회담내용이 『당분간 계속공개되지 않을것』이라고만 했다.

美人權에「二重基準」없다

"詩人가둔나라 창조적文化불능"

헤이그、OAS總會서 演說

【워싱턴4日=聯】알렉산더·헤이그美국무장관은 4일 美정부가 人權원칙을 확고하게 고수할 것임을 재확인하고 인권원칙을 적용하는데 있어 2중기준을 두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했다.

헤이그장관은 이날 세인트 루치아의 카스트리스에서 열린 美洲기구(OAS) 11차총회연설을 통해 『인권위반사례에 대한 美정부의 판단은 공정해야 하며 2중기준을 허용해서는 안될것』이라고 강조했다.

헤이그장관의 이날 연설은 국무성에서 공개됐다.

헤이그장관은 『국민이 自由를 박탈당한 나라는 자유화될수 없다』고 못박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선택의 자유등을 포함하는 개인의 권리존중은 인간적인 사회의 기본요건』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詩人과 철학자가 투옥됐거나 망명한 나라에서는 창조적인 문화가 이루어질수 없다』고 말했다.

◇人權·언론자유强調하는 헤이그美國務
헤이그 美국무장관(中)이 4일 세인트 루치아에서 열린 美洲기구(OAS) 총회에서 연설, 인권과 특히 언론자유의 존중을 강조하고있다。【카스트리스 (세인트 루치아) 4日AP합=聯】

美·쿠바 秘密會談

헤이그、로드리게스副首相만나 11월

【마드리드5日合=聯】지난 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이후 최초의 미·쿠바간 고위각료급회담이 지난11월 멕시코에서 비밀리에 열렸다고 스페인의 엘·파이스지가 5일보도했다。이신문은 최근 미국이 쿠바가 엘살바도르 좌익게릴라를 지원하고 있다고비난、쿠바에 대한 무력응징을 위협한후인 지난11월23일 멕시코시티에서 알렉산더·헤이그 미국무장관과 카를로스·라파엘·로드리게스 쿠바부수상이 비밀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신문은 이 비밀회담은 멕시코 외무성 2층사무실에서 열렸으며 이회담의 유일한 참관자는 호르헤·카스타네다 멕시코 외상뿐이었다고 말했다.

엘·파이스지는 정통한 외교소식통을 인용、이 회담에 앞서 11월20일 아바나 주재 멕시코 대사공관에서 예비회담이 열렸으며 여기에는 로드리게스와 쿠바수상 피델·카스트로및그의동생라울·카스트로가참석했다고밝혔다。신문은 로드리게스 부수상의 멕시코 시티방문은 철저한 비밀에 붙여졌었다고 밝히고 그는 이곳에서 호세·로페스·포르티요 멕시코 대통령및 카스타네다 외상과도회담을 가졌다고 말했다.

펜·소반、書記長職축출

캄보디아共黨 헹·삼린承繼

【방콕5日로이터=聯】프놈펜의 親베트남정부는 캄보디아의 실력자인 펜·소반을 공산당서기장직에서 축출하고 그자리를 국가위원회의장 헹·삼린이 차지했다고 5일 프놈펜 라디오방송이 보도했다.

프놈펜방송은 펜·소반(46)이 건강상이유로 오랫동안 휴식을취하지 않을수없어 제거됐다고 짤막하게보도했다。이 결정은 지난4일 공산당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美82년國防費 2千87억弗

上院서 승인…역사상 最大규모

【워싱턴5日합=聯】미상원은 4일 미역사상 최대규모인 2천87억달러의 82회계연도 국방지출법안을 승인했다.

공화당이 지배하고있는 상원은 이날밤 레이건 대통령이 재래식군사력을 회생시키고 핵전력강화에만 힘쓰고있다는 민주당의원들의 비난을 꺾고 국방지출법안을 상정、찬성 84 반대 5로 통과시켰다.

상원이 승인한 이 국방지출법안은 B1전략폭격기및 MX이동식미사일생산비 24억달러와 19억달러를 각각 포함하고있어 오는86년까지 총1천8백억달러를 투입、전략핵무기를 현대화하려는 레이건 대통령의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수 있는 길이 열리게됐다.

사하로프夫妻、13일째斷食중

美정부、며느리出國허용촉구

【워싱턴4日합=聯】레이건 미대통령은 4일 며느리의 이민을 실현하기위해 13일째 단식투쟁중인 소련의 반체제 물리학자 안드레이·사하로프 박사내외의 건강상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또한 소련정부에대해 현재 미국대학에서 수학중인 남편을 만나기위해 출국하려는 사하로프 박사의 며느리에게 출국비자를 발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보다 앞서 미국무성도 사하로프박사내외를위해 『매우 끈질긴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는데 사하로프박사내외는 단식에따른 건강악화로 유배지인 소련고르키시의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이날 보도되었다.

◇13일째 斷食중인 사하로프夫妻
단식투쟁중 蘇聯당국에 의해 강제로 병원에 입원된 것으로 알려진 蘇聯의 노벨平和賞수상자 안드레이·사하로프부부。이사진은 지난76년에 찍은것이다。【뉴욕4日AP합=聯】

武器공급량 增强 蘇、쿠바에

【워싱턴4日UPI=聯】소련은 올들어 11개월동안 쿠바에 [illegible] 이래 1년단위로서는 최대량인 6만2천톤이상의 군사장비를 쿠바에 공급했다고 美정보소식통들이 4일밝혔다。이소식통들은 올들어 지난 11월까지 소련이 쿠바로 선적한 탱크、항공기、지대공미사일등 군사장비는 모두 6만2천톤으로 이는 지난62년 미사일위기때의 5만톤보다 많고 지난해1년동안의 2만4천톤을 훨씬 능가하는것이라고 지적했다.

헤이그、7國순방 8일부터 11일간

【워싱턴4日UPI=聯】알렉산더·헤이그 미국무장관은 11일간의 예정으로 유럽 중동 아시아 북아프리카등의 7개국 순방길에 오르게 된다고 미국무성이 4일 발표했다。헤이그장관은 12월8일 워싱턴을출발、브뤼셀에 9일부터 13일까지 머물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헤이그장관은 이어 13일부터 15일까지 이스라엘 터키를 순방한다음 16일부터 18일까지 아프가니스탄접경의 파키스탄도시인 페샤워르와 인도를 방문할 계획이다.

美 계속反對하면 살림、辭退할듯

유엔事務總長후보

【유엔본부3日UPI=聯】쿠르트·발트하임유엔사무총장의 차기사무총장후보 사퇴에따라 그와 경합했던 살림、아메드·살림 탄자니아외상은 미국이 자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도록 설득하기 위한 마지막노력을 벌일것으로 3일알려졌다.

유엔安保理의 올라라·오투노의장(우간다)은 발트하임총장및 살림외상 두사람에게 후보사퇴를 요청、발표하했으며 만약 美國이 계속 살림외상의 사무총장지명을 반대하게되면 그 역시 사퇴할것으로 보인다.

安保理는 그렇게될 경우、사무총장후보에 나설 의사를 비치고 있는 7명에 대해 다음주 부표를 실시하게 되는데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호르헤·카스타네다 멕시코외상과 前유엔난민高等판무관인 사드루딘·아가·칸王子가 손꼽히고 있다.

成長거점都市에 春川을 追加확정

정부는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기간(82~91년)중에중점육성될 성장거점도시에 春川을 포함시키기로확정했다。5일 건설부에의하면 이에따라 성장거점도시는 당초계획의 大田·光州·大邱·江陵·原州·天安·淸州·忠州·安東·全州·木浦·順天·晋州·濟州등 14개에서 15개로 늘어났다。

[illegible] 533·2361

外信일지

◆시스케이國 초대 大統領에 세베選出＝南阿공화국의 백인정부통치로부터의 독립 첫날을맞은 흑인부족국가 시스케이는 4일 레녹스·세베수석장관(55)을 초대 대통령에 선출했다。【비쇼＝AP】

◆日·中頂上 내년에交換訪問＝스즈끼·젠꼬(鈴木善幸)일본수상과 중공수상 趙紫陽이 日-中共관계정상화 10주년을 맞아 내년에 상호교환방문할것으로 예상된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4일 보도했다。아사히신문은 또 北京의 매우 믿을만한 중공소식통을 인용、중공의교부副部長으로 전보되는 符浩駐日대사의 후임에 외교부장 補佐 宋之光이 임명될것이라고 말했다。【東京＝AP】

◆무바라크、來2月이스라엘訪問＝호스니·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은 4일 오는2월 취임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할 계획이며 방문에앞서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어떤아랍국도방문할용의가 있다고 밝혔다。【카이로＝聯】

메아리

유엔의 마라톤

지난 1월초현재로 세계에는 모두 1백65개의 독립국이 있다고 미국무성이 밝혔었다。2차대전이 끝날 무렵만해도 약70개국이었던게 2·3배이상 늘어난 셈이다。이들 1백65개국중 우리가 외교관계를 맺고있는 나라는 1백15개국。또 한 1백54개국이 국제연합(유엔)에 가입하고 있다。

그만큼 유엔의 살림살이는 엄청난 것이다。지난달 유엔의 의사담당사무차장이 발표한 것을보면 지난해 유엔본부에서 인쇄된 문서를 쌓아 올리면 자그마치 37㎞높이가 될것이라한다。원고지로 쳐서 54만장의문서에 해당한다고한다。뉴욕의 본부에다 제네바에 있는 산하기관을 합친 기록문서들을 한줄로 늘어놓으면 자그마치 27만㎞나될것이라는 얘기다。

원래 주인이 없는 국제기구인만큼 유엔의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낭비가 많다는 시비가 끊이지않고있다。늘 문제되는 것이 「월급도둑」이라는 비난이다。78년봄 월급을 올렸을 때의 급여표를 보면 한해 8만5천달러(약6천만원)이상 받는 사람이 35명이나됐다。발트하임 사무총장은 관공비를 합쳐서 12만5천달러(8천7백50만원)를 받고、따로 접대수당이 있다。

이때 카터 미국 대통령은 20만달러(1억4천만원)를 받았지만、먼데일부통령도 겨우 8만5천달러였다。월급으로 치자면 카터 대통령만이 이들보다 더 받은 셈이다。게다가 작년11월에는 돈과 섹스가 낀 인사부정사건이 들통나 이래저래 「국제적인 월급도둑」이라는 비판을뒤집어쓰게 됐었다。

80、81년도의 경우 유엔은 13억달러(9천1백억원)의 예산을 쓰게돼있다。이중 미국이 3억1천7백만달러(2천2백20억원)、소련이 1억4천1백만달러(9백87억원)를 맡고있다。앙숙같은 이들두나라는 유엔의 살림을 깎아야된다는데 일치、5년전부터 쓸모없는 예산항목깎아버리기 운동을 벌이고있지만 성과는 신통치않다는평이다。

그러나 어쨌든 유엔은 지금 세계최대의 국제정치 토론장이다。사무총장은 이토론장의 살림을 맡는 막중한 자리다。이 사무총장에 누구를 앉힐것이냐를 둘러싸고 전에 없는 마라톤이 벌어지고있다。동서의 지지를 받는 발트하임이 제3세계의 인물이어야 된다는 중공의 거부권16회로 주저앉게됐다。미국이 싫어하는 아프리카출신 살림 탄자니아외상 대신 제3의 인물이 누구일까 주목된다。그야말로 개발국과 개발도상국의 씨름판꼴이 된셈이다。

都市근로자家口月소득 평균33萬3千1百67원

昨年比 명목늘고 實質은 6%減少

지난 7、8、9월 석달동안(3·4분기) 도시근로자家口의 월평균소득총액은 33만3천1백67원으로 작년같은때보다 17·3%가 늘었으나 그동안 물가가오른것을 감안하면 실질소득이 6% 오히려 감소한것으로 나타났다。5일 경제기획원 통계에따르면 도시근로자 家口는 월평균총소득 33만3천1백67원중 각종세금·公課金으로 1만3천2백76원을 부담했고 평균 25만5천8백2원에서 월평균 소비지출을 억제하여 나머지 6만4천89원을 저축등형태의 흑자로유지했다。

소비지출 25만5천8백2원은 명목금액으로는 작년같은때보다 21·1%가 늘었으나 인플레를 감안한 실질구매력으로는 3%가 감소된수준으로 家計의 耐乏을 반영했다。

이같은 긴축家計를 반영、家口소비내용도 상당한 변화를 보였는데 작년 7월이래 3차례의기름값인상、두차례의 연탄값인상으로 작년같은때보다 전기료부담은 55·2%、연료비가 32·5%나 늘어난것을 비롯 전반적인 光熱費가 39·6%의 가장높은 지출 증가율을 보였고 또 금년 7월의 정부방출미가격인상으로 쌀을비롯한 곡물소비지출이 22·7%나 늘어났다。대신 피복비는8·8%、조미료는 6·1%、미용·위생비8·8%의증가율로 不要不急한 費目에의 실질소비는크게줄인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지난 6월 학교納入金、진료비 인상으로 의료비는45·2%、교육비는 33·7%가 늘어나 잡비상승률이 크게 높아졌다。

家口當 소비지출구성은 식료품구입에 9만5천2백35원(소비지출액의37·2%)、집세등 주거비에 5만7천1백73원(〃22·4%)、난방등 光熱費에 1만5천8백27원(〃6·2%)、피복비 1만8천7백54원(〃7·3%)、잡비 6만8천8백13원(〃26·9%)등으로 나타났으며 家計의 높아진 식품비지출구성에따라 엥겔係數가 작년같은때의 37·1%에서 0·1포인트가 증가한 37·2로 늘어났다。

國民保健 의료有功 南總理、5명에 表彰

南悳祐국무총리는 5일상오 국민보건의료에 공이큰 朴文子씨등 5명과 全南도립麗天병원、馬山市보건소에 총리표창을 수여했다。표창을 받은 사람은 다음과같다。

▲朴文子(강원도립의료원 간호기좌)▲高光昊(忠南도 보건과보건기사)▲李忠敎(全南도립順天병원지방의무技正)▲羅璟熙(慶北도립金泉병원 지방의무技正)▲南祥玉(濟州도립濟州병원지방간호技士補)

平和統一자문회의 市郡區協운영협의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는 5일상오 서울奬忠洞사무처에서 38명의 위원이 참석한가운데 지역협력분과위원회를 열고 2백24개 市·郡·區협의회운영방안을 협의했다。

4·7言論人會이전

4·7言論人會(회장 李寬求)는 新聞會館 신축관계로 지난1일 사무실을 한국경제신문사별관4층(서울中區中林洞441)으로 이전했다。전화777 4767

教育者대회 勳章수상자

◇국민훈장 모란장

[illegible]

◇국민훈장 동백장

[illegible]

◇국민훈장 목련장

[illegible]

◇국민훈장 석류장

[illegible]

내밭에 등불 <12>

梁貴子 作 金光培 畵

글쎄、과연 이게 왜기일까…、생(生)의 파괴에 와 박힌 날카로운 화살이라도 되는걸까。내가 원했던게 바로 이런 것일까。

해는 여전히 무딘 빛살을 사방에 퍼뜨리며 구름사이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었는데 바로 그날 갸름한 글씨의 편지가 한통 배달되었다。

처음 그 편지를 읽고 나선 아무것도 판단할 수가 없었다。편지를 뜯으면서도 난 오로지 재회의 기쁨만 상상하고 있었다。그렇게 한꺼번에 자신을 다 드러내 버리곤 숨어버릴 그녀일 줄은 아예 짐작조차 못하고、뿌연 해를 바라보며 짐짓 날씨 타령까지 하는 여유를 부리지 않았던가。

…이제는 정말 누군가의 따뜻한 호주머니가 그리울 때입니다。<갈채>앞의 거리에도 겨울을 지키는 밤의 나그네들이 시린 발길을 돌리고 어둠속을 걷겠지요。이렇게 끝날 이야기인줄 알면서도 당신을 만나고、당신의 가슴 한켠에 자리잡은 것이 가장 큰 내 실수라면 당신은 너무나 억울한 피해자입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당신께 말합니다。내가 왜 이처럼 사무치게 서러우면서도 당신에게로 달려가지 않는가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좋을까。그녀의 편지 귀절이 띄엄띄엄 머릿속에 떠올랐다가는 방향도없이 사라져갔다。

나는 거의 한나절을 내내 편지 읽는일로 보냈다。읽고 또 읽어서 이제는 거의 외울만하다고 생각될때서야 비로소 이 편지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것은 칼로 자르는것보다 더 단호한 이별의 선언이었다。

승희는 언니와 둘이서 여지껏 이 세상을 헤쳐왔다고 했다。부모 대신으로 그녀를 키워온 다섯살 위의 언니는 동두천에서 뿌리박은 양공주라고 했던가。

언니는 그 바닥에서 성공한 여자지요。나이는 들었지만、엄연히 결혼신고까지 마치고 늙은 협부를 따라 본국으로 들어갔으니까요。그 협부가 흑인이라 해도 나는 언니가 설움많은 이 땅에서 떠나는 것을 환영했어요。나는 언니의 일생이 몇되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얼마나 악몽투성이였던가를 가장 잘 아는 증인이니까요。

그녀의 언니가 이 한많은 땅에 동생을 남겨두고싶지 않아 서둘러 불러들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었다。그러나、그러나 나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잖은가。

이제는 모든 준비가 다 끝났읍니다。떠나는 날짜까지 울지않고 잘 기다리는 일만 남았으니까。이 겨울을 끝내 함께 나지 못하고마는 것은 내 탓이 아닙니다。돌아오지 않을 이 땅에、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을 이 땅에 행여 눈물같은것을 심고 떠날까 두렵습니다。새벽부터 밤까지 그쪽 사람들의 마룻바닥이나 닦으며 살지라도、언니와 나는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승희가 떠난다。그것도 이 땅을 실컷 저주하면서。게다가 내가 품고있는 사랑까지 조소하면서。이제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여자。그 여자는 우리들의 사랑까지도 서랍 정리하듯 미련없이 정리하고 이제부턴 다시 혼자가 되겠다고 말한다。

나는 눈을 감았다。<갈채>에 나갈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눈을 감고누워버렸다。나의 작은 배는 이미 주인도 없이 떠내려 가고 말았다。

나는 더욱 세게 눈을 감았다。눈가의 고랑으로 눈물이 소리도 없이 넘쳐 흐르기 시작했다。

승희。상처투성이의 내 작은 배。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 MASA ~~~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5주년 기념 세일
⊙전자 CASH REGISTER
⊙각종 전기전자 계산기
⊙각종타자기
⊙금고, 책상, 케비넷
김 성 수
교포경력(TORONTO 15년 경력)
분납가능

Grant Brown
새차및 81년도 데모카
특별세일(매출)
GMAC 이자율 14.2%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MACHO 버거 레스토랑
●아담하고 조용한 장소로써 여러분을 모시겠읍니다.
●연말연시 각종파티나 모임에 적합합니다.
●술도판매합니다.
●파티석 70석
●파킹편리하고 음악및 시간은 예약에 따라 마음대로 조정가능하니 연락주십시요.
전화 : 498-1300
(MR. 리)
Steels. E
Gorder Baker
Finch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 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30P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삼미떡집2층)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거리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집전화 : (416) 222-9480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 883-9407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광고 신청은
한 국 일 보 사
●일반광고-테레사
●매매, 구인광고-Mrs. 리
☎ : 533-2361
~~~

商銀 白基昶씨 한국최초 복막透析수술

「1%의壁」뚫고 새生命 찾았다

鬪病의지·우정·최신醫學 조화 메디컬 휴먼드라마 꽃피웠다

◇국내에서 첫 복막투석수술을 받고 퇴원한 白基昶씨。부인과 함께 商銀노조사무실에 들러 金鍾鍚지부장㊧으로부터 성금을 전달받고있다。

白基昶씨(32·한국상업은행 문서과 대리·한국일보 80년9월9일자보도)가 투병3년만에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지속성 보행성 복막 투석(透析)수술(CPDA)을 받고 생명을 되찾았다。1% 확률의 벽을 뚫은 어려운 再生이다。그것은 또 환자의 투병의지、은행동료들의 따뜻한 우정、최신의학의 세가지요소가 조화를 이뤄 끌어낸 메디컬 휴먼드라마이기도 하다。5일 병원문을 나서며 白씨는 차나 한없이 맑은 하늘을 향해 힘차게 중얼거렸다。『두번째 얻은 생명이니 만큼 후회없이 살겠다』고。

退院하자 동료誠金·옛戰友가 집한채

한달치료비 60萬원 "가난한 다른환자에도 밝은빛을"

3살아들 얼싸안고 "후회없이 살련다"

白씨는 지난달17일 세브란스병원에서 1시간에 걸친수술을 받았다。

白씨가 받은 복막투석수술은 콩팥이식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들을위해 개발된 최신치료법。복막속에 특수플래스틱관을 집어넣고 인체에 고정시킨 다음 이것에 비닐로된 투석용기 용액을 주입、혈액의 요독성분을 뽑아내는 방법으로 인공신장정수기를 몸에 부착하고 다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2천cc가 들어있는 이 용액은 6시간정도면 모두 소모되므로 하루 4번씩 용기를 바꿔차야하는 번거로움이 따르지만 종전처럼 1주일에 1~2번씩 직장을 빠지며 통원치료받는 번거로움은 없어졌다。

당초 白씨의 투병사실이 보도되자 60명의 콩팥기증희망자가 쇄도했었다。

여러차례 조직현검사등 사전검사를 했으나 지나치게 수혈을 많이받아 체내에 항체가 생겨 콩팥이식수술을 할수없게돼 새수술방법인 복막투석수술을 받게된것。세브란스병원 인공신장실장 鄭錫浩박사(40)에 의하면 白씨를 수술대상으로 선정한것은 그동안 白씨가 인공신장정수기치료를 오래받아 환자교육이 잘돼있고 체격(1백76㎝·67㎏)이 좋아 미국인을 표준으로한 2천cc용액이 몸에맞을것으로 판단됐기때문이다。

이수술방법은 지난 76년부터 미국、캐나다에서 개발되기 시작、지난6월 아테네에서 열린 국제신장학회에서 다각도로 연구보고되기도했다。

白씨의경우 이 투석용기가 1개에 5천원이어서 한달에 60만원의 치료비가드는데 민간인이 수입할수 없기때문에 세브란스에서 의학·연구용으로 구입한 용기를 계속 지급받아야할 형편。의학·연구용이라도 50%의관세가 매겨져 미국의 2개제조회사에서 1개 3.5~4달러정도인것이 이처럼 비싸질수밖에 없다는것。

만성신부전증은 매년 1백만명당 50여명의 환자가 발생、우리나라의경우 2천명이상의 환자가 생기는 것으로 추정되고있는데 현재 국내의료기관의 인공신장기는 1백20대로 절대수가 부족할뿐아니라 한달치료비가 1백만원을 넘어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죽어가기 일쑤이다。

이때문에 환자들은 지난해 12월14일 신장협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당국에서 대책을 세워줄것을 계속 호소해왔으며 지난9월26일에는 이들중 50여명이 정부종합청사에 몰려가 농성을 벌이기도했다。

한편 白씨는 서울西大門區延禧洞219의2에 8백만원짜리 전셋방2개중 1개를 2백만원에 세주고 방한칸에 살면서 월3·5부이자의 사채를 얻어쓰는등 투병을계속해왔는데 그동안 진빚만5백90만원。商銀 노조원들의 성금에서도 매달 은행이자분20만원을 보조 받았다。독실한 교인인 白씨는 퇴원길에 鄭박사및 마중나온 商銀노조간부들과 굳은악수를나누며 부인 金씨와 아들碩鎬군(3)을 얼싸안았다。생명의 길을 마련해준 은행에 더욱 열심히 근무할것을 다짐하는 白씨에게 군대동기였던 친구 姜賢植씨(32·건축업)가 자신이 지은 연립주택을 무상분양해주겠다는 뜻밖의선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또 商銀노조(지부장 金鍾鍚·37)는 노조원들의 성금 1천4백66만여원이 예금된 정기예금증서를 白씨에게 전달、앞으로의 치료에 보태쓰도록해 「재생의길」이 순란해지도록 한는 배려를 잊지않았다。【任喆淳기자】

KBS、株主權행사 MBC、3人委구성 예산편성執行관장

문화방송(MBC)은 오는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감사1명을 추가 선임하는한편、문공부국장、MBC전무、KBS전무급 이사등으로 경영협의체인 3인위원회를 구성할것으로 알려졌다。

3인위원회는 MBC의 신규투자사업등 예산편성및 집행을 관장하게되나 인사및 방송편성업무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을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한국방송공사는 대주주로서 주주권한행사를 하게된다。

KBS는 지난해 방송공영화조치에따라 MBC주식의 65%를 이관받은데 이어 지난 7월에는 서울味元지분을 인수、현재 MBC의 주식 70%를 가진 대주주가 됐다。

"北韓의 經濟사정 惡化로 한반도 緊張高潮 가능성"

日讀賣紙 심포지엄

【東京5日=宋孝彬특파원】 영국의 국제전략문제 연구소와 요미우리신문은 지난1일부터4일까지 공동으로 한반도와 동남아의 안전보장에관해 심포지엄을열고 80년대의 동남아국제정세를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의 前서울특파원이었던 시마모또(嶋元謙郎)씨는 『금년9월 바덴바덴에서열린 국제올림픽 위원회가 88년도 서울올림픽개최를 결정한것은 80년대의 한반도정세를 긴장완화의 방향으로몰고 갈수도있으나 반대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없지않다』고 경고했다。

시마모또씨는 그 이유로서 북한이 88년 서울올림픽개최를 방해하기위해 무장간첩의 남파등 긴장을 고조시킬염려가있으며 북한의 경제사정악화가 긴장을고조시키는 새로운요인이 될수도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대학원의 金宗輝교수는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일본의평화안전에 불가결하다고 늘 입버릇처럼말해왔고 군사적이외의 협력으로 서방진영의 평화안정에공헌하겠다고 천명해왔으므로 이번에 한국이요청한 對韓경협은 최대한 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다운 「스승의 길」 다짐

전국教育者대회 "召命의식 가다듬어 不條理추방"

3천7백35명 褒賞

전국유치원 원장、초·중고교교장、대학 총학장과 교육계인사 1만2천여명은 5일상오 잠실체육관에 모여 교육자대회를 열고 교육혁신과 사도확립으로 우리교육의 새로운 전진을 이룩해나가자고 다짐했다。

全斗煥 대통령을 비롯、3부요인과 학·예술원회장、교육헌장기초위원、문교부장관등이 참석、국민교육헌장선포13주년을 맞아 열린 이날 대회에서 교육자들은 『최근 한 교사가 저지른 사건으로 국민에게 충격을준데대해 공동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참다운 교육자상정립 ▲투철한 국가관과 교육관으로 단합된 교육의지의발휘 ▲교육재정의 효율적인사용 ▲전인교육의 충실화 ▲교육혁신과업에의 적극참선등 5개사항을 결의했다。

이날 李奎浩문교장관은 대회사에서 『우리의 교육개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교육체제안에 있는 부조리와 문제점을 남김없이 가려내고 개선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李장관은 또 우리나라 교육의 당면문제중에는 과밀학급이나 과대학교의 문제못지않게 『교사교육의 체제와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교육자도 서로의 소명의식을 다시한번 가다듬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을 성취하자』고 말했다。

이날대회는 교육헌장이념을 구현하는데 업적이 큰 李鍾律경북교육감등 2명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한것을 비롯、75명에게 국민훈장 동백장、86명에게 국민훈장 목련장、79명에게 국민훈장 석류장등 모두 3천7백35명에게 각종훈포장및표창、감사장등을 수여했다。★명단10면

KAL·JAL機 日서 空中충돌 危機모면

日관제잘못、3백m차 아슬아슬비껴

【東京4日=聯合】 일본 이와떼(岩手)동쪽 태평양 상공에서 지난3일저녁 KAL과 JAL의 보잉747점보기가 3백m정도 간격으로 지나가 하마터면 대형참사를 빚을뻔 한것으로 4일 알려졌다。

JAL이 4일 일본운수성에 보고해온바에 의하면 서울發 앵커리지行 KAL008 보잉747기와 앵커리지發 나리따(成田)行 JAL43 보잉747기(승무원17명·승객3백71명)가 3일저녁9시8분께 이와떼縣미야꼬(宮古)市동쪽 2백60㎞상공에서 3백m거리를두고 서로 반대방향으로 지나갔다。

JAL측 보고는 3일하오 3시15분 앵커리지를 출발한 JAL기가 1만1천3백m 고도로 나리따를향해 비행중 똑같은 고도로 오른쪽전방에서 KAL기가 접근해오고있는 것을 발견했으나 방향을 바꿀틈도 없이 15초 후에 3백m거리를 두고 아슬아슬하게 지나갔다。

日本운수성은 위기일발의 이번 사고가 문제의 상공을 관제하고있는 운수성 東京항공교통관제부(사이따마縣)의 관제잘못에 기인한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진상을 조사중이다。

문제의 상공에서는 작년1년간 비슷한 사고가 11건이나 일어난바있어 일본운수성은 이번 사건을 중시、양기의 운항표、교신기록등을 조사、명확한 원인을 캐내려하고있다。

남의 住民證으로 취직한뒤犯行 갈비집 殺人강도

속보=서울觀水洞 삼미갈비집 강도살인사건을 수사중인 서울鍾路경찰서는 5일 이 사건의 범인이 네다바이한 남의 주민등록증으로 식당에 취직해 일하다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날 당초 용의자로 수배한 식당종업원 孫築俊군(17)의 주민등록증을 범행현장에서 찾아내고 孫군을 연행、조사한결과 孫군이 지난달25일 이 주민등록증을 부산으로가는 열차안에서 23세가량의 청년에게 네다바이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孫군에 의하면 지난달25일 하오9시께 취직을 하기위해 부산으로 가던중 열차안에서 만난 청년이 『전당잡힌 시계를 찾는데 필요하다』며 주민등록증을 빌어 그대로 달아나버렸다는것。

日、한국人낀 마약密賣團적발 列車운반중

60億엔 규모…3명체포

【東京5日=聯合】 한국루트의 대규모 각성제밀수사건을 조사중인 일본경시청은 4일밤 신간선을 이용、시모노세끼에서 東京으로 대량의 각성제를 운반하던 일당 3명을 체포했다。

체포된 범인 가운데 주범은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사는 한국인 鄭成旼(35)으로 판명됐다。

압수된 각성제는 30㎏(싯가60억엔)으로 각성제 적발사상 최고의 양이다。

이들은 4일상오 시모노세끼 해안에서 각성제를 인수받아 東京으로 운반중 열차내에서 체포됐다。

경시청은 鄭등이 빈번히 한국을 왕래했으며 비밀봉지의 접착테이프등으로 미루어 어선을 이용、한국에서 각성제를 밀수해온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休日 날씨 쌀쌀 南部 영하 4도까지

내일 大雪 눈올듯

휴일인 6일 우리나라의날씨는 기압골의 후면에들어 전반적으로 맑겠으나 영하권을 벗어나지못하는 쌀쌀한날씨가 될것같다。

중앙관상대는 중부지방의 경우 이날기온이 영하6도~0도、남부지방은 영하4도에서 영상4도、낮기온도 1~8도 정도가 될것으로 전망하고 大雪인 7일하오늦게나 8일아침에 한차례 눈이 내릴것으로 내다봤다。

30代 工事場인부 칼맞은變屍로

5일상오7시30분께 서울九老區加里峰洞484의2 동일실업주식회사앞 공터에서 金均好씨(31·노동·冠岳區奉天本洞158)가 이마에 피를 흘린채 숨져있는것을 회사경비원 池昌範씨(59)이 발견했다。

池씨에 의하면 회사정문앞 공터에 쓰러져있던 金씨는이마에 가로4㎝ 세로1㎝가량의 상처를 입고있었다는것。

金씨의 부인 林英任씨(30)에 의하면 金씨는 지난3일상오10시 冠岳區新林5洞에있는 여관건축현장으로 일하러갔다가 귀가길에 이웃에사는 누나 金順愛씨(40)집에 들러 하오9시께 나간뒤 소식이 없었다는것。

경찰은 金씨가 발견된곳이 京仁고속도로진입로부근인점으로 미루어 金씨가 뺑소니차에 치인뒤 유기된것이아닌가보고 수사를 펴고있다。

前栗山대표 申씨 詐欺혐의 訴被

전栗山실업대표 申善浩씨(34)가 5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栗山실업의 전西獨뒤셀도르프지사설치요원이었던 朴相燁씨(34·서울江東區驚室2洞 驚室주공아파트 262동512호)는 이날 申씨가 지난78년 설치비도 주지않은채 지사개설지시를 내려 2만마르크(한화6백30만원상당)를 빌어썼는데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돈을 주지않고있다고 주장、서울江南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朴씨에의하면 申씨는 당시 자신을불러 뒤셀도르프에 지사를설치、확인서를 보내주면 송금해주겠다고 약속、현지에서 다른 한국상사 사무실에 임시연락처를 차린뒤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2만마르크를 빌어 사무실 직원숙소 임대텔렉스 사용계약등을 마쳤다는것。그뒤 朴씨는 본사에 5차례이상 지사설치비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栗山이 도산한뒤 귀국、돈을 돌려줄것을 요구했으나 계속 만나주지 않고있다고 주장했다。

버스문열고 出發 40代여인墜落중태

【光州=聯】 5일상오7시50분께 光州市西區月山洞 대성국교앞 시내버스 주차장에서 光州현대교통 소속 전남5자1327호 시내버스(운전사 梁基珍·33)가 60여명의 승객을 태우고 문을 닫지 않은채 출발하는 바람에 문옆에 서있던 李재순여인(48·光州市西區月山1洞200의3)이 문밖으로 떨어져 머리에 중상을 입고 시내 北區北洞 金외과의원에 입원중이나 중태다。

표주박

등교길 中學生 失踪6개월 美移民앞둔 부모를 발동동

○…중학2년생이 등교길에 실종된지 6개월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 미국에 초청이민갈 날짜를 눈앞에둔 부모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水踰中 2년 金鍾熏군(14·서울道峰區昌1洞66의2)은 지난 5월20일 상오8시께 등교한다며 집을 나간후 소식이 끊어졌는데 아버지 金在厚씨(44·상업)와 어머니 金明子씨(42)는 그동안 경찰에 수색을의뢰하고 신문·방송에도 광고를 내는한편 갈만한곳을 찾아다니며 수소문해봤지만 아직껏 鍾熏군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있다。

○…金씨부부에 앞서 오는 12일 미국으로 떠나는 鍾熏군의 외할머니 鄭神通씨(73)는 『내가 이제 떠나면 죽어서나 돌아올텐데 가기전에 鍾熏이를 보고싶다』며 울먹였는데 키1백53㎝가량에 마른편인 鍾熏군의 연락처는 ⑳3291 金在厚씨댁이나 北部경찰서 형사계。

市外버스노선 開設미끼 2千萬원詐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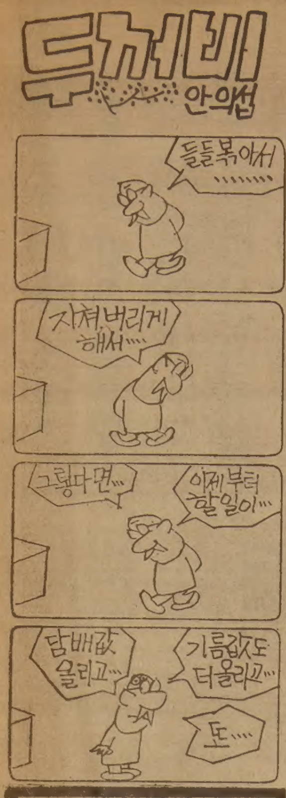
"교통부 高位層잘안다"접근

서울東部경찰서는 5일 黃泳南씨(58·전과14범·서울城東區紫陽洞218)를 상습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黃씨는 지난해3월중순 朴容武씨(44·경기城南市城南洞1061)에게 『교통부고위층과 친분이 두텁다』고속여 시외버스노선을 개설해주겠다면서 4차례에 3백50만원을 받은것을 비롯 지금까지 버스업자 5명으로부터 15차례에 걸쳐 모두2천3백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승용차업은 耕耘機 "탈탈"

충남 瑞山~泰安국도를 과속으로 달리던 레코드·디젤 승용차가 운전부주의로 전복、대파되는 바람에 경운기 신세를 지게됐다。무거운 짐을 실은 경운기는 힘에 겨운듯 탈탈거렸는데 이 흔치않은 구경거리를 지켜본 행인들은 『마치 어른이 어린이를 업어가는 꼴』이라고 한마디。【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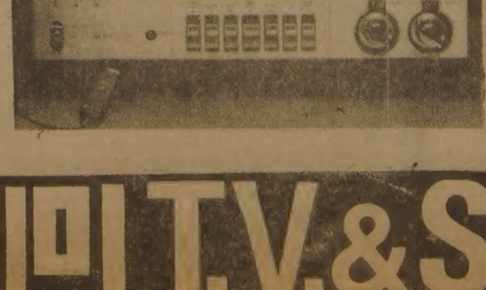
SUN—LIFE
생명보험. 각종보험
B) 922—3111
R) 439—8885
MRS. 김신명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416)533·2361

"비데오 테프 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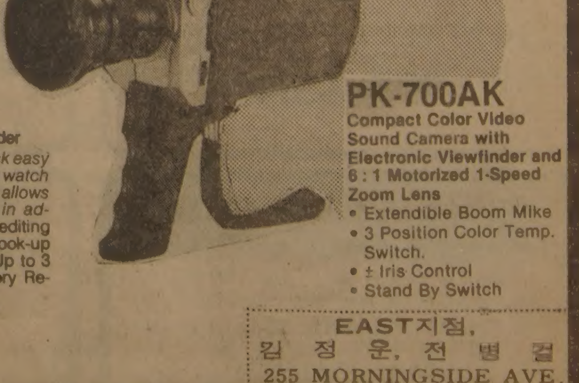
PV-3200K Omnivision VHS
2-4-6 Hour Home/Portable Video Cassette Recorder with 24-Hour Tuner/Timerand Add-on Recording
Panasonic

SANYO
Makes Life's Good Things… Better
Video Cassette Recorders



VTC9100 Video Cassette Recorder
Sanyo makes video recording or playback easy and inexpensive. Built in TV tuner lets you watch one program while recording another or allows unattended recording up to 24 hours in advance. Remote Pause Control for instant editing • Lighted Channel indicators • Easy TV hook-up • One touch Recording or Playback • Up to 3 hours Recording or Playback* • Memory Rewind • Automatic Shut Off.
*Note: L-830 tape not recommended for use with VTC9100
$ 799.00

Panasonic



PK-700AK
Compact Color Video Sound Camera with Electronic Viewfinder and 6 : 1 Motorized 1-Speed Zoom Lens
• Extendible Boom Mike
• 3 Position Color Temp. Switch.
• ± Iris Control
• Stand By Switch

WEST지점
전 광 재
3467 WESTON RD. FINCH
745—5555

EAST지점,
김 정 운, 전 병 걸
255 MORNINGSIDE AVE.
282—2820

아카데미 T.V.&STEREO CO.

12월9일～12월30 일까지
전품목40% 가격인하.
크리스마스 밍크 대매출.

"그이가 걸쳐준
밍크의 따스함 속에서
나만이 짜증스러웠던 날들,
울어버렸던 날들이
웃어버린날로 변했읍니다.

밍크 Sale

40% OFF

밍크·라쿤•마스크랏트•비버•페르샨람•마모드
•여우털•각종모피제품류
•남자용 쎄므반코트•런던 포그바바리30% OFF

크리스마스!

유명백화점, 일류모피상점을 찾아다녀 보시면 보실수록 모피제품 선택의 어려움이 더욱 커집니다. 원피와 제품감별의 어려움, 디자인에서 제품과정에 이르는 불합리성, 일정제품에 대한 가격의 차이등 보이지않는 모피제품만이 가지고있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금번 대매출기간을 연장하여 "최저가격에 대한 최고의 품질"을 가지고 자신있게 12월 말까지 대매출을 실시하오며, 모피전문가를 모시어 취향에맞는 디자인, 원하시는 싸이즈대로 주문제품을 완전 40% OFF해 드리겠사오니 이번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캐나다 최상품의 밍크제품을 최저가격"으로 장만하시어 연로하신 어머님께, 사랑하는 아내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모피제품은 1년동안 무료보험, 무료보관하여 드림.

모피조끼(VEST)

가게 안에서 따뜻하게
간편하게 입을수 있는
모피조끼가 준비되었음.
완전제품
주문에 의한 제품.

빅 세븐선물센타

678 BLOOR ST. W. (고려식품 옆) 533－7966

영업시간 : (월～토)아침10시～밤11시30분 (일요일)12월13일과20일뿐, 12시～밤9시

카나다최고품질의 "마제스틱"밍크원단을 사용한 12만달러 상당의제품확보.

RHIM & ASSOCIATES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THE KOREA TIMES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
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매니저구함. 주매상 : $6,000이상인 성업중인
그로서리 스토아임. 약간의 보증금 요함.
☎ : 431-4474, 439-4885(MR. 김)

GAS ATTENDANT구함
☎ 782-6311

도나스샾에서 6일 밤일하실 여자분 구함
(밤11시~아침9시) 스카보로지역
☎ : 284-9325(Mrs. 남)

애기 봐주실분 구함(입주 또는 출퇴근해서)
☎ : 284-3031

성실하게 가게에서 일하실분 구함
QUEEN ST. E.
☎ : 466-3995

매매및 양도

HUNTS BAKERY
X-MAS 생일, 단체용 CAKE 주문
☎ : 769-4347 (던다스 AND 스카렛)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매매
이층방 포함 렌트 : $650
☎ : 656-7753

야마하 피아노 매매 :
4년간 사용, $3300
☎ : 881-8230

도나스 샾과 햄버거 샾 매매
(다운타운지역)
월 순이익 $15000 보증, 권리금 $295000
☎ : 531-2689 미스타 박

생선가게 매매 : ROYAL YORK & QUEENS WAY
259-1585의 JOE, OR
364-3883의 FRANK에게 연락요.

트라우트 농장 매매 : 연매상 8만달러
관심 있으면 주디 브라운에게 연락요
해밀턴 523-7510 D. M. ROBBINS INC.

밀크스토어를 찾으십니까?
소자본으로 인수 가능
스탁은 은행에서 모게지 조정가능
현재는 CHAIN 스토어임
지역 : 오사와, 버링톤, 해밀톤, 피터보로, CEAFORTH
, WALKERTON, KING CITY.
☎ : 624-5817 (Mrs. 차)

좋은투자기회
30년간 이룩해온 약국과 빌딩 세일 서쪽끝에있음.
우체국 포함 ☎ : 781-2560(Mr. BALIAN)

바 겐!
단돈 $15,000 다운페이로 스탁과 설비가 포함된
비지네스와 분리된 집을 살수 있읍니다.
아스킹 : $85,900 DUTTA나RICHARD·YAN
에게 연락하세요. ☎ : B)752-7575 R)499-4246

밀크스토아 매매
주매상 : $6,000~6,700 리스 : 4년반+10년옵숀
2922 EGLINGTON E. ☎ : 431-4474

몬트리얼이나 퀘벡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 . SUITE 320, MONTREAL, P.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 849-0959, 7374~6

STORE FOR LEASE
NEW NEIGHBOURHOOD PLAZA
IN GEORGE TOWN ☎ : 749-8661

투자의 기회
브라말리아 에있는 메트로 토론토 북서쪽 100
에이커의 땅. 오락센터와 고등학교에 근접해 웅.
현재 발전지 로부터 2마일 거리에 있음.
☎ : 636-0963(6PM이후 연락바람)에이젠트 원치않음.

안내광고를 원하십니까?
●2줄 1칸 …… 3회 ………… $10.00
●2줄 1칸 …… 5회 ………… $13.00
●2줄 1칸 …… 10회 ………… $26.00
50자 이내로 내용을 적으시고 아래주소로 보내주시면 우편 도착 다음날부터 게재해 드립니다.
THE KOREA TIMES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한국일보 광고문의
533-2361
한국일보사 광고국

구 혼

1939년생 남자
결혼에 실패한 가족없는 여자원함
☎ : 742-1671 Mr. 유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 관 현

미 용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화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킴스 미용실
☎ :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보 석

다이아몬드·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 MR. LEE

Young's JEWELLERY ●보석전문가(보석주문, 감정
및디자인, 개조, 수리일체) ●도매시세로 최고 품질을 최저
시세로 매매(책임보증)B) 284-9325 R) 281-1954

시설및 수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목공소 **FineWoodwork**
676•1173 769•9468 조 상 민
상점시설및 주택개조·사우나 설치
진열장·카운터·홈빠·책장등 가구제작

악기점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Modern Pianos
한일의 SOLOMON 피아노가 서울서 도착! 모던
피아노로 와서보고 구입하세요. ☎ : 665-5600
97NORFINCH DRIVE, DOWNSVIEW.

양장점

샘터의상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현의상실
각종양장 마춤전문 ☎ : 769-1559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인벤토리

INVENTORY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에어콘·히팅·냉장고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센추리냉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한국여행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천우여행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신세계여행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울여행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일여행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자동차수리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ROGERS GARAGE ☎ : 651-9324(B)
자동차 수리 일체). 226-5430(R)
20 ROGERS RD. 변 달 원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럭키 DRAPERY
4141 DIXIE RD. (딕시×버남돌프)
☎ : 625-0698 최 원 보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꽃 집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용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65 남파·김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꽃도매상 437 CARLAW AVE. TOR
*각종 CUT FLOWER, 생화, HANGING PLANT, TREE.
*꽃과 화분을 취급하는 스토어
*개업인사, 각종파티, 사무실용, 방문
☎ : 465-8167 (MR. 김, MR. 곽)

한 방 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웅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면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서울한의원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황진할)

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R.I.A. 김인규
ACCOUNTING & TAX 844-0178

태 권 도

손명수 태권합기도장 :
2186 BLOOR ST. W. (사범 : 손명수)
(AT RUNNYMEDE써브웨이) ☎ : 763-1155

박종수 태권도장(사범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교포들에게 반액으로 봉사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 (웨스톤×로렌스) 로부로 앞

기 타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학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통닭. 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 전문 :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
☎ : 537-0432 미스타 리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8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숙

ZAP SUREKILLER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니폰·비데오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 698-0633 하마구찌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VIDEO 촬영 •wedding
•commercial •wall decors

아십니까?
안내광고란의 위력을….

流星의 賊 <253>

李炳注作
李友範畵

感傷異國月 ⑩

6월중순 통신사 일행은 비로소 하까다(博多)란곳에 도착했다。

그 예날 정포은(鄭圃隱)이 이곳에와서 당시 일본의 구주탐제(九州探題) 금천료준(今川了俊)과 협상하여 부려(俘虜)가 된 동포 7백여인을 데리고 간적이있다。이조(李朝)에 들어선 신숙주(申叔舟)가 이곳에 왔었다。신숙주는 이곳을 파가대(覇家臺)라고 음역했다。

하까다에 상륙한 홍계남은 대륙에 온 듯한 감흥을 얻었다。그 선착장(船着場)의 웅대함은 부산포(釜山浦)와 비교가 안될 정도였다。수백척의 대선이 운집해 있고 부두에 오가는 사람들도 활기를 띠고 있었다。한편 눈을 내륙으로 돌리니 광활한 들이 있고 아득히 멀리 구름 사이에 산영(山影)을 찾을 뿐이었다。거리는 지붕을 상접하여 고층가옥이 즐비했고、그 사이로 삼투를 뒤로 젖히고 검은 옷을 입은 무사들이 대소 두개의 칼을 차고 활보하면 서민들은 황급히 길을 비켜서고 하는 양이 이상하기만 했다。

『저걸 무사(武士)라고 하오』

통사 한사람이 계남에게 가리켰다。그리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일본은 사농공상(士農工商)으로 계급이 나뉘어 있는데 사(士)라고 하면 무사(武士)를 가리킬 뿐이오。말하자면 무사가 절대권(絶對權)을 쥐고 문신(文臣)을 겸하고 있소。무(武)를 모르는 문사(文士)란 행세할 수가 없는 곳이오。그런 뜻에서 우리나라완 전연 반대로 되어 있소』

『그래서 항상 저렇게 칼을 차고 다니는 거요?』

하고 물었다。

『무사는 칼을 차고 다니지 않으면 안되오。우리 나라의 의관속대로서 정장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칼을 쓰나요?』

『쓰고 말구요。왜인들은 단기(短氣)라서 사소한 구툰 끝에 칼을 빼어 죽이고 죽고 한답니다』

『피상한 풍습이구료』

『뿐만 아닙니다。서민들이 비위에 거슬리는 언동을 하기만 하면 함부로 베어 없애기도 합니다』

『그래도 법(法)이 아무 소리도 안합니까?』

『서민이 무사를 모욕했거나 무시한 증거가 있다고만 하면 그만이죠』

『서민은 죽어 지내야 하는 세상이구먼』

『그렇소。서민은 죽어지내야죠。그런데 우리 일행도 조심을 해야 합니다。함부로 나다니지 말아야죠。언제 칼을 뽑아 들고 덤빌지 모르니까요』

이상은 상륙직후 일행의 행차가 정돈되길 기다리는 동안 홍계남과 통사 사이에 오간 말이다。

이윽고 고취(鼓吹)의 대열이 앞장을 섰고 그다음에 군관의 일대、그리고 이어 정부통신사、서장관、그다음 또 군관의 일대、기타 잡관、잡졸、마지막으로 보군관의 일대、이런 순서로 행렬이 진행하여 갔다。

하까다의 거리는 축제모양으로 되었다。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구름처럼 모여들었다。그도그럴것이 반년만에 처음있은 통신사의 방문이었던 것이다。

홍계남은 마지막 군관의 대열을 이끌고 늠름한 모습으로 걸어갔다。찌는듯한 여름의 더위였지만 간간이 바닷바람이 불어 행렬엔 절호의 날씨라고 할수있었다

중앙 AUTO SERVICE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TOR.
☎ : 532-3946 김창세